

민족과 함께 세계를 향한 도약

건학 1백주년, D-1000일 행사 열려 ... 1백만등 달기 선포식 진행

본교가 건학 1백주년을 전일 앞둔 지난 12일 오후 6시 팔정도에서 '건학 100주년 D-1000일, 100만등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홍기삼 총장, 법장 총무원장, 류주형 총동창회장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D-1000일 기념 타종 △순재현 교수 무용단 공연 △총장·이사장·총무원장 차사 △Lotus 현악사중주단 기념연주 △1천인 페넨트 테이프 커팅 및 1천등 점등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협찬 제막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홍기삼 총장은 "건학 100주년을 1천일 앞둔 기간동안 새로운 미래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라며 "특성화된 학문영역과 좋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06년까지 1천억 원의 발전기금 모금을 목표로 해 △불교병원 개원 △1백주년 기념관 건립 △서울캠퍼스 기숙사 건립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섭님은 현성스님이 대독한 차사를 통해 "동국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법장 총무원장은 "병원을 원만히 개원하고 세계 불교계의 총본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도약 기원 100만등 달기'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학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동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날 약 859명이 동참해 총 9억 6천여 만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이와 관련해 발전기금팀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발전기금 모금에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100만등 달기 운동은 오는 2006년 5월 8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순재현 교수 무용단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종관위, 병원조사 위한 소위원회 구성

불필요한 재정투입 조사 ... 다음달 결과 발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원택)가 불교병원 공사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동국대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영담, 이하 소위원회)'를 지난 6월 13일 발족했다.

이번 소위원회 발족은 그동안 불교병원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종단이 직접 특별기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담스님은 "불교병원 개원이 당초 계획보다 수 개월이상 늦어지는 상황에서 개원준비 과정에 불필요한 재정이 투입된 바 있는지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위원회는 △목왕리 영탑사업 △미 로스앤젤레스 로얄대학에 대한 조사도 더불어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는 다음달 교계와 재단이사회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불교병원개원추진단(이하 개원추진단) 규정이 지난 7월 통과돼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인사업무 △의료장비 등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업무 △불교병원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불교병원 규정 및 각종인·허가에 관한 업무 등 개원준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개원추진본부 김윤길 본부장은 "한시기구인 병원개원추진본부보다 지속적인 준비가 가능한 개

원추진단이 발족되면 개원준비논의를 기초부터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원추진단은 9월 초 외부업체에 △개원준비 현황분석과 개원세부일정 수립 △경쟁환경 분석과 경영계획 수립 △예산투자계획 및 운용방안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직제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원정관개정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193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미달로 또다시 연기됐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제41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개최

정선우·이현주·임현아 등 12명 수상

본사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주최한 '제41회 전국 고등학생 문학콩쿠르대회'가 지난 6월 14일 본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각 부문 입상자는 사부문 △장원=정선우(분당중앙고3) △차상=이현정(삼현여고3) △차하=박지희(과천외고3), 강세희(육천고3)이며

소설부문 △장원=이현주(분당중앙고3) △차상=한아름(논산여고3) △차하=문아름(서문여고2), 김송원(춘천외고3)이다. 또한 수필부문 △장원=정선우(분당중앙고3) △차상=이현정(삼현여고3) △차하=박지희(과천외고3), 강세희(육천고3)이며

야구부, 전국대회 출전
오늘 단국대와 첫 경기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희)가 오늘(25일)부터 10일 동안 열리는 '제58회 전국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연세대 △건국대 등 총 27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단국대와 오늘(25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 야구장에서 첫 시합을 갖는다.

한편, 지난 6월 막을 내린 '제40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1차대회'에서 농구부(감독=최성오)는 한양대와 공동 3위에 입상했다.

또한 이 대회에서 본교 유병재(체육1) 선수는 득점상을 수상했다.

1학기 수시모집 경쟁률 8.6 대 1

첫 학과제 모집 ... 학과간 선호도 차 심해

본교 2004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결과 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모집은 논술과 학생부성적을 통해 총 235명을 선발했으며 국어국문학과가 24.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모집은 일부 단과대 모집단위를 학과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실시해 주목됐으나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간의 선호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와 www.uway.com을 통해 진행된다.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총 873명을 선발하며 △일반우수자 △불교계추천 △과학·외국어 △실업계고교 출신자 등을 모집한다. 또한 이번 2

학기 수시모집에서는 불교계추천전형이 불교대 뿐만 아니라 문과대·사범대·예술대·야간간좌를 제외한 전 단과대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어우수자·특기자(문학·체육)전형은 경찰·소방·유공자 자녀 전형과 승려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전형방법은 논술고사와 학생부성적, 면접고사이며 불교계추천·외국어우수자·특기자(문학·체육)전형은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본교 퇴임교수 5명

2003학년도 장년교수·직원 퇴임식이 내일(26일) 총장실에서 열린다.

퇴임교수는 임기중(국어국문학) 홍지유(물리학) 김재공(전자공학) 이민섭(건축공학) 김현규(교육학) 교수이다. ▶관련기사 5면(특집)

분단을 밟고 간다 금강산으로, 통일로!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8.15기념 금강산 평화캠프'가 진행됐다. 남측의 대학생 7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프는 비무장지대를 통한 첫 육로 관광이라는 점과 장전현에서 온 정리까지 8.15km를 처음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이번 캠프에 참가한 본교생 안윤희(신빙4) 양을 동행취재했다. 편집자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안윤희 양을 비롯한 대학생 756명을 태운 20여대의 차량이 비무장지대에 들어서고 있었다.

"철원이 고향이라서 어릴 때부터 북한에 관심이 많았어요. 철조망도 쉽게 보곤 했는데 그 너머에 있는 비무장지대가 궁금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이번 캠프에 참가했다는 안 양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이었다.

차창 너머로 50년 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았다고 보기에 평범한, 군대군데 녹슨 초라해 보이는 남방한계선의 철문이 나타났다. 그리고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흙길. 지난해 11월부터 남과 북의 병사들이 총대신 삼을 들고 지뢰를 제거해 만든, 남과 북을 잇는 소중한 길이다. 길 양옆으로는 지뢰매설지역이라는 간판이 여기저기에 보였다.

차량은 아무 장애도 없이 비무장지대의 가운데인 군사분계선을 조용히 미끄러져 갔다. 주 최측은 애초 비무장지대 도보행진을 계획했지만 정전협정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만약 계획

대로 됐으면 수 백명의 남측 대학생들이 두 발로 이 길을 걸고 있을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곧 인민군 두 명이 버스에 올라탔다. 순간 말로만 접하던 인민군의 모습에 버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인민군이 인원 수 확인을 위해 조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안 양은 "담연하겠지만 우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남측의 남학생들에 비해 키도 작고 어려보여서 귀여웠어요"라고 말했다.

▶4면(사회)으로 이어짐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보리소

삶과 죽음

삶과 죽음에 관해 인간은 착각과 고민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간다. 짧은 시절에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듯이 '착각'을 하고 늙어서는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민'을 한다. 삶은 당연하지만 죽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금방 드러난다.

시작이 없는 끝과 끝이 없는 시작이 있을까. 삶과 죽음을 역시 서로를 물고 영원히 회전하는 피부우스의 따처럼 동시적이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가 "제발 한번만 내 아들을 살려 달라"고 호소를 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이 나라 안에서 한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내면 비로소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물론 그런 집이 있을 리는 만무할 터. 한참을 헤맨 후 지친 몸을 이끈 여인이 다시 부처님 앞에 돌아왔다. 부처님은 그때서야 그녀를 위로하시며 '삶과 죽음에 대한 설법'을 행하셨다고 한다.

일정준동. 사바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죽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달콤한 꿈에 불과하다. 털고 나면 먼지도, 뒤돌아보면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남은 것이란 순간의 집착에 불과하고 이 집착이야말로 무지의 근원이자 사바세계의 핵심이다.

집착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몸부림은 그저 죽을 수 없기에 살 수 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기에 앞으로 내동댕이쳐질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하다.

죽음은 우리에게 반성과 속고라는 지혜를 가져다주고 욕망과 미움을 멈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리에게 죽음의 마침표가 있는 한 미움도, 욕망도, 그저 우리가 허허거리며 털어 낼 수 있는 먼지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삶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도 피할 수 없다.

김소운
불교문화연구원

본 사 사 령

- ◇ 임 차장
- ▲ 대학부 차장 = 최성민(사과대 경제2)
- ▲ 사회부 겸 여론부 차장 = 최우석(불교대 불교2)
- ◇ 임 수습기자
- ▲ 최민희 (사과대1) 이상 8월 25일자

당신의 펜으로
동대신문이 새로워집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1만화가자 大모집

- 신청기간 : 9월 16일(화) 까지
- 신청자격 : 만화에 관심있는 학생 누구나(습작 지참)

1신설 칼럼 학생논단(가) 필자 모집

학생논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과 사색을 담아내는 칼럼입니다.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학생논단의 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문화면 '문화일기-내 생애 최고의 ○○' 학술면 '○○교수의 나를 깨운 사상가' 자유기고를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12면 **황학동 시장 르포**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황학동 시장 철거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그곳을 탐방하여 문화적 가치를 알아본다.

3면 **새 국면 맞은 한총련**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새 수사방침과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논란을 살펴본다.

7~9면 **문학콩쿠르 당선작**

제41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절대평가제 이번 학기부터 시행

학점경쟁 따른 불이익 감소 예상 ... 학점 인플레이션상 우려

이번 학기부터 2학년 과정 이상 전공과목에 절대평가제가 도입돼 학점경쟁에 따른 불이익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무처(처장=김부봉·국어국문학)는 지난 7월 상대평가제가 △전공 수업 기회현상 초래 △수강인원이 적거나 창작수업일 경우 학점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절대평가제를 시행하면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수업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학년 전공과 교양과목은

전공선택시 일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대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상대평가는 학부제 도입과 함께 전공배정에 유리한 교과목과 학점취득이 쉬운 교과목에 대한 선호를 막고 성적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96년 도입됐다. 그러나 등급별 인원제한으로 재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학교측의 결정에 대해 학생회를 비롯한 학내구성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는 "상대평가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학업부

다는 학점에 대한 경쟁심리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교수들도 "성적을 일정한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평가해 성적평가가 좀 더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절대평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 기업체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강의내용이나 방법보다 교수의 평가성향에 따라 수강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단과대 및 학과간의 성적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제도적인 문제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교수와 학생의 태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기부터 교양과 1·2학년 전공과목의 폐강기준이 △교양과목=40명(야간강좌 20명)에서 20명(야간강좌 10명) △1·2학년 전공과목=8명에서 5명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강정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회전무대

신 베스트셀러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종합강의시간표 책자를 둘러보는 것이 유행이라는 데.

알아보니 일부 학생들이 수강신청 책자를 2권 이상 가져가 이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몇몇 학생들의 이기심으로 다른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 왓. "수강신청 책자, 선착순 배포로 갖고 싶은 만큼 여러권 챙겨가세요(!)"

공중전화 원정기

○...본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개인 휴대폰이 필수 준비물 중 하나라는 데.

이유인즉 건물 내 설치돼 있는 공중전화기 일부가 전원이 꺼져 있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건물을 옮겨다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 왓. "공중에 뜬 공중전화기, 공중을 외면해버리다(!)"

이유있는 통제

○...요즘 팔절도에서는 수위아저씨와 일부 학생들 사이 통행권에 관한 100분 토론이 한창이라는 데.

알아보니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타거나 물품을 데리고 지나가는 것이 금지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팔절도가 예불을 드리는 등 야외법당의 기능을 하는 장소이니 만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는는지.

이에 본 회전문무대 왓. "법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그러면 출입문이 열릴 것이다."

빛나간 계란세례

○...통일선봉대 학생들 때문에 한 나라당 주변 삼장들은 느닷없는 계란세례를 받아야 했다는 데.

이유인즉 한 나라당 시위중 현란에 던진 계란 투척물이 주변 삼장들에 튀었기 때문이라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사과 또는 청소를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 왓. "통선대, 평화는 선봉대 책임은 후발대(!)"

수강신청 프로그램 진단

서버용량 부족으로 오류 빈번

"외부 컨설팅후 장비구입 등 계획 세울것"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수강신청 한 과목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자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학교측은 지난 6월 1학년 수강신청 당시 정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수강신청이 되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선착순으로 취소했다. 이에 학교측은 뒤늦게 영어회화 등을 비롯한 14개 강의를 추가로 개설했지만 177강좌에서 약 1천9백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환(사과대1)군은 "급하게 강의를 신청하게 돼 다 단과대학 수업을 수강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일에 대해 김강수 정보시스템관리팀장은 "지난해 프로그램 다운을 막고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2개의 서버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지난해 관련업체에 의뢰해 보완했지만 당시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정보관리실은 외부업체에 서버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이번 수강신청 기간에는 정원 초과 문제를 막기 위해 다시 한 개의 서버를 이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임기응변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수강신청은 △프로그램의 잦은 다운 △느린 속도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용량이 접속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수강신청의 경우 프로그램 다운 등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수강신청 시간이 다른 학사업무 시작 시간과 동일해 서버 속도 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연세대는 99학년부터 인터넷 수강신청을 도입하고, 선관관의 경우 HP SUPER서버로 교체해 수강신청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본교는 빠른 시일 내에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한 후 장비·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수강신청이 매 학기 꺾어야 하는 일인만큼 학교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af55@dongguk.edu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지난 20일 중강당에서 ... 박사 66명 등 총 1천29명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0일 분관 중강당에서 진행됐다.

홍기삼 총장, 현성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학위 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학사 549명, 석사 405명, 박사 66명 등 총 1천29명이 학위수여를 받았다. 또한 각 단과대 및 기관 추천에 의해 선발되는 공로상은 △김규배(물리) △김은선(통계) △김진아(사회)가 수상했다.

홍기삼 총장은 식사에서 "졸업 이후에도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정진해야 한다"며 "사회에 나가 스스로 담당한 주인이 돼 모교를 빛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동국학원 이사인 현성 스님은 치사를 통해 "민족과 인류의 희망 빛이 쏘아 한다"며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나라·인류·민족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규교직원 수계식 열려

참선·예불 등 진행

2003학년도 2학기 신입교직원 수계식이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정각원 법당에서 열렸다.

이번 수계식은 불교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선 및 108참회 △찬불가 연습 △예불, 예불문 강의로 진행됐다.

상반기 감사결과 발표

문과대 등 4개 단과대 새터감사 함께 진행

2003학년도 상반기 통상감사 결과 예술대에 무기한 예산정지 징계 조치가 취해지고 총대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예산정지 5주의 징계를 받는 등 5개 학생자치기구와 7개 단과대에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감사결과는 (표)와 같다.

이번 감사는 단과대의 경우 자체감사로 진행됐고 중앙기구와 대의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단과대는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했다.

특히 지난 새터 차량문제 등으로 새터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문과대 △사과대 △생지대 △공과대가 상반기 감사와 새터감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옥 총대의원장은 "지난 새터감사를 거치며 자체 감사가 안정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회칙에 감사의 시기 등에 대해 명문화하고 모호한 세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대의원회는 이번 결과를 책자로 제작해 다음달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표〉상반기 감사 결과

징계내용	단 위	시행세척 및 징계사유
징계없음	법대·학복위	
주 의	총학생회	24조 1-2항 감사자료제출 시한을 넘김
	교지편집위원회	24조 1-1항 회의록 미제출
경 고	사과대	24조 1-2항, 24조 1-3항 내용미비
	아간강좌총학생회	24조 1-1항, 24조 1-3항
	경영대	24조 1-1항, 24조 2-1항 사업국장 불참
엄중경고	생지대	24조 1-1항
	공과대	24조 1-2항, 24조 1-3항, 24조 1-5항 감사시간초과
사범대	사범대	24조 1-3항, 24조 2-1항
	총학생회	24조 1-2항, 24조 1-3항
예산정지 2주	문과대	24조 1-1항, 24조 1-2항, 24조 2-1항
	예산정지 5주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24조 1-1항, 24조 1-2항, 24조 2-1항, 24조 1-6항 집행부서장의 울비트역할 미수행
무기한 예산정지	예술대	24조 1-1항, 24조 1-2항, 24조 1-3항, 24조 2-1항, 24조 2-3항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24조 5-1항 자료 불충분

중도 자료실 이용시간 변경

평일 오후9시·토요일오후 5시

중앙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이 오늘(2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연장된다.

변경된 시간은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한편, 열람실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개방되며 대학원 열람실은 24시간 개방될 예정이다.

졸업생 생협출자금 환불

생협사무실에서 지급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생명자원유통산업학, 이하 생협)이 해화관 1층 생협사무실에서 2002학년도 하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출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급내용은 입학금에 포함된 출자금 1만원과 10%의 배당금을 합친 1만 1천원이며, 96년 생활설립 이전에 입학한 졸업생들과 96년도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한은 졸업 후 5년까지이다.

학복위, 가을특강 접수

토익·속성한자 등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난희·식자)가 가을학기 어학특강 신청을 오늘(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 개설강좌는 △TOEIC 종합반 △TOEIC 750 완성반 △이익훈 토익 L/C·R/C △속성한자-2000자이며, 접수는 △TOEIC 종합반 △TOEIC 750 완성반=중앙도서관 앞 △이익훈 토익·속성한자=다화관 구내서점에서 받는다. 강의는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학복위는 과목별 모니터 도우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도우미는 모니터일지를 작성하고 강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며 특강이 끝나면 수강료 전액 환불받는다.

인라인 스케이트 강좌 신설

사회교육원, 오는 31일 개강

사회교육원이 가을학기부터 인라인 스케이트 강좌를 신설한다. 이번 강좌는 초급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음달 4일 개강해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총 16회 진행된다.

신청은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학술문화관 1층 사회교육원에서 받는다.

이와 관련해 사회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적극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학기 등록 오는 29일까지

신용카드 납부 중단

2003학년도 2학기 등록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등록금은 국민, 제일, 조흥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통해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로 오는 29일까지 등록금의 한 이상을 납부하고 잔액을 10월 10일 이전까지 자신이 지정한 날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재무회계팀에서 받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납부는 이번 학기부터 중단된다.



'기능성' 새단장 ... 하계방학 중 학생회관 외벽공사가 진행됐다. 이번 공사는 건물 내부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 비트' 공법을 이용했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도서관 보관함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 2백명 접수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이 보관함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난달 도서관 1층에 설치된 보관함은 3시간 단위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관함과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기간제 보관함으로 각각 200개씩 설치됐다.

시간제 보관함은 3시간당 100원이 보관함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또한 7일 경과 후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강제 수거된다. 기간제 보관함은 1개월당 3천원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안내

200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2003. 8. 27(수) 09:00부터 ~ 8. 29(금) 24:00까지, 3일간
* 아간 전공 및 교양과목은 8월 27일 오후 6시 이후에 수강신청 정정시작
- 장 소**
교내컴퓨터실(시간표 책자의 실습실 안내 참조) 및 교외(인터넷)
- 대 상**
2003학년도 2학기 재학생
- 기 수강신청 과목확인**
본인의 이메일 및 학교 홈페이지의 수강신청조회에서 확인
- 유의사항**
가.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PC로 정정할 것(세부절차는 시간표 책자 참고)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다.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최종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강의시간표 조회 또는 본인 수강신청 확인란을 참조하기 바람.
라.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음, 마. 수강신청 정정 후 별도의 확인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새 국면 맞는 한총련

또다시 '한총련 흔들기' 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파장 ... 합법화 논의 주춤

지난달 25일 한총련 수배자 79명의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한 발짝 다가서게 된 '합법 한총련'의 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있었던 한총련 대학생 12명의 '스트라이커부대 시위'의 파장이 '예상외로' 컸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일에 대해 "엄중 대처"를 요구했고, 정부는 시위 참여자 12명을 전원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한총련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공세와 보수언론의 연이은 '이적 한총련' 보도는 부정적 여론 형성에 한 몫했다.

어제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총련은 일방적 관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미시위로 국익을 거스르고 있다"며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번 시위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11일자 사

설에서 "한총련 폭력시위는 순수한 학생운동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들려 놓으려는 도시계렬라형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한총련 학생들은 이들의 말대로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 '왜'라는 물음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의 반응이나 보수언론의 보도는 단지 한총련 '트집잡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시위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한총련이 진압 시위를 벌인 스트라이커 부대는 창설 이후 첫 해외원정훈련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신속기동여단으로,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히 파견돼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실상의 전정 사전훈련 부대다.

한총련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시위는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지 모를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수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화염병도 불뿔도 아닌, 맨몸으로 벌인 비폭력적·상징적인 시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15일 종각에서 열린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에 참가한 시민의 말처럼, "최소한 스트라이커 부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건 한총련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시위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결짓지 않기를 촉구하는 한총련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법화 관련 움직임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구속 수사 방침 발표 후, 한총련은 수배해제 정도와 수준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수배자들의 자진출두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진출두 한 7년차 수배자 유영업(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씨가 구속돼 대검의 예초 '관용' 방침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총련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수배자들의 연행과 구속은 수배해제 조치의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파기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배자들의 자진출두를 전면 유보한 상태이며 앞으로의 향방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여하튼 분명해 것은 이번 파장이 한총련 합법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보수언론의 한총련 '트집잡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조선일보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순수한 정치'와 언론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 진보와 개혁을 뿌리부터 흔들려 놓으려는 도시계렬라형 공격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본교 수배자모임 오선임 양을 만나 "검찰발표는 그동안의 성과 자진출두하기로 의견모아"



이제 지난 22일 오선임 양을 만나 검찰발표에 대한 본교 수배자 모임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 검찰의 방침에 대한 본교 수배자 모임의 입장. = 그동안 진행된 한총련 합법화 운동의 성과라고 본다. 물론 우리가 주장해 온 '불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재판장에 서야한다는 점은 한계이다. 그러나 성과를 부정하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검찰의 발표를 접한 후 불구속 수사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검찰의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은 출두하기로 했다는 뜻인가.

= 그렇다. 불구속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진원 전 총학생회장까지 모두 네 명의 수배자가 22일 자진출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20일 첫 자진출두를 감행한 유영업 군의 구속사실을 접하고 출두를 유보한 상태다. 오는 30일 즈음 결정될 유 군의 구속여부를 지켜보아야겠지만, 큰 가닥은 '출두하자'는 쪽으로 잡힌 상태. 만약 출두하게 된다면 아마 추석 이전이 될 것이다.

다만 유영빈 총학생회장은 현재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구속될 경우의 파장과 영향력을 고려해, 자진출두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하반기 본교 내에서 진행할 한총련 합법화 운동계획이 있는지.

= 추석을 기점으로 수배해제 운동을 일단락 짓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사설

건학 100주년 '함께' 준비하자

'D - 987일.' 100년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건학 100주년을 1000일 앞두고 '일류 동국도약 기원'의 밤 - 건학 100주년 100만 등 달기 행사가 열렸던 지난 12일부터다. 바야흐로 10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기념하며 또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단'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홍기삼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동국발전 기금 1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해 불교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쓸 것이며 향후 서울캠퍼스 기숙사 건설, 장학금 확대, 건학 100주년 기념을 자축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국 100주년 기념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듯 보인다. 기념사업이 모금기금에 치중돼 있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육·연구·역사 개신 등의 내적 발전을 위한 뚜렷한 '의제 설정' 역시 이렇다할 가시적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동국 발전을 위한 기념 사업 추진 혹은 '의제 설정'에 학내 3주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 힘들 정도로, 동국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동양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동국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과제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교수와 직원은 물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한 동국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 100년의 역사는 과거의 업적과 걸어온 길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 쌓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미래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져야 한다. 미래의 100년을 향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홍기삼 총장이 취임 초 강조했던 대로 '내실있는' 동국 발전 방안을 구상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진정한 '민족과 함께한 100년, 세계를 향한 100년'의 동국이 빛을 발하려면 말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국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 시행 유보

사전 의견교환 부족 ... 구성원 논의로 재검토해야

취업지원팀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한 '동국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 (Dongguk Career Elite Program, 이하 엘리트 프로그램)이 구성원간 사전 논의 부족으로 유보됐다.

취업지원팀은 2학기부터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취업지도 △취업관련 실용교과목인 '비즈니스 협상스킬' 등의 취업대비 8강좌 개설을 골자로 하는 엘리트 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무연구위원회(위원장=김무봉·

국어국문학)는 △현장실습으로 행해지는 '인간관계 향상' 등의 강좌가 사이버강의로 부적절 △취득학점을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킬 경우 전공교육 선택의 폭이 줄어들 교육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유보했다.

이에 대해 취업지원팀은 "강좌당 수강인원이 많고 반복학습을 고려할 때 사이버강의가 적절하고 학교의 실질적인 취업대비교육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엘리트 프로그램 시행유보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의 사전 의견교환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엘리트 프로그램이 강좌개설·학점 취득 등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관련자들과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채 추후 2학기 시행예정을 앞두고 유보된 것이다.

이로 인해 본교는 취업을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게 됐다. 지난 학기 엘리트 프로그램 시행을 전제로 직업탐구 I·II를 폐지해 취업특강을 제외한 취업관련 교육이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도한다는 의미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 프로그램을 신청한 324명의 학생들은 10여회의 취업관련 메일링서비스를 받았을 뿐 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타대학의 경우 취업강좌개설은 물론이고 취업센터로 확대운영하며 취업관련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교는 빠른 시일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엘리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체계적인 취업대비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건학 100주년 동국도약 기원 100만 등(燈) 달기

동국사랑, 손모아 마음모아...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데 모아 동국의 도약을 염원하는 「건학100주년 동국도약 기원 100만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헌등이 2006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100년 동국과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동국사랑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참여안내

■ 참여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정성을 소중히 접수하여 헌등씩 헌등함

■ 접수기간 2003년 8월 ~ 2006년 5월 8일

■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수증물품도 가능

■ 무통장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 313-03-002943 외환은행 : 065-13-19061-0 신한은행 : 216-05-005036 국민은행 : 068-01-0373-353 제일은행 : 107-10-119210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우체국 : 012328-01-001567

■ 지로접수 : 지로번호 (7606368)

■ 헌등하신 분의 명패는 본교 정각원에 보존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동국대학교 대각전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드리며, 동국VIP카드를 발급하여 본대학교 부속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비 할인혜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동약로

책임회피



“동국대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할 최종 책임자를 찾아 서울까지 왔습니다”
 지난 19일 본교 경주, 포항부속병원 등 동국의료원 노조는 본관 앞에서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왜 50여명의 인원이 자신의 일자리도 내팽겨둔 채 경주, 포항 등지에서 서울로 먼 길을 온 것일까.

“의료원과 학교측은 노조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조와 의료원 측은 3년 전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은 공석이 있을 경우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다음해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결원이 생길 경우 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3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규직 직원은 늘어났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저 간호사는 오전에는 내과에 있더니 오후에는 외과에서 진료하네.”

심지어 경주부속병원의 경우 외과 간호사가 내과로 진찰을 가고 월 10회 이상 썩 바 근무를 할 정도의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다.

이에 노조는 지난 13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19일에 본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학교와 재단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료원)에게 권한 밖의 일이다.”

“실질적 주체인 의료원과 직접 논의하라.”

의료원과 학교·재단 양측에서 책임을 서로 미뤄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한 노조와 의료원간 논의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지난 21일 홍기삼 총장이 의료원에 전권을 위임한 후에도 의료원 측이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파업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국의료원은 파업으로 인해 최소인력만 근무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의료원은 학교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조 역시 환자들을 생각해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금강산 평화캠프 동행취재】

분단을 밟고 통일로 오른다

▶1면에서 이어짐

버스는 곧 비무장지대를 벗어나 장전항에 도착했다. 지난 5년 동안 모든 금강산관광객들을 실은 배가 닿았던 장전항. 금강산관광은 1998년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그 해 11월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용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정부의 지원이 점점 감소하고 급기야 특검 수사를 받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어진 정몽헌 회장의 자살, 그러나 지금은 정회장의 뒤를 이은 김윤규사장의 강한 의지를 표명해 그나마 한 고비 넘긴 상태다.

정회장의 죽음 이후 잠시 동안 발길이 끊겼던 이곳, 장전항에 첫 발을 내디딘 손님은 756명의 대학생들이 되었다. 이들은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 온 대대가 북한땅 8.15km를 걸어간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대북 민간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향한 첫걸음이 이들로부터 시작된 셈이다.

입국식사가 끝난 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온정각까지의 도보행진이 시작했다. 어깨마다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두르고 북측땅을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했다. “북측땅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마구 뛰며 피로가 사라졌다”는 안 양 긴 시간 여행으로 지칠 법도 하지만 말로만 들던 금강산을 바라보며 걷는 학생들의 모습은 활기차 보였다.

행진이 중간에 이르렀을 때쯤 갑자기 학

생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멀리 학생들과 안 양이 바라보는 곳에는 온정리 민가가 보였던 것이다. 안 양도 손을 흔들며 계속 “안녕하세요”를 외쳤고 북측 주민들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비록 철조망 사이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표정들이었다.

금강산 등반은 둘째날과 셋째날 진행했다. 구룡연폭포와 만물상으로 가는 길은 험했지만 북측 민간인과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에 학생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남측에서도 몽글하다는 말을 শু네까? 우리는 지금처럼 동포가 만났을 때 몽글하다는 말을 শু네다.”

“저희도 지금 같은 순간에 몽글하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처음 금강산을 올 때는 설악산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많이 다르네요. 설악산 아세요?”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로 북한안내원과 어느새 친해진 안 양. 통일이 되면 함께 설악산에 가기로 했으며 약속까지 했다.

광복절 저녁에는 ‘평화·통일 기원 8.15 행사’가 진행됐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다음에는 북측대학생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며 금강산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서 인디밴드 레이저본과 가수 전인권, 한영애의 공연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북녘땅에서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며 마음껏 즐겼다. 특히 마지막에는 모든 가수들이 한 무대에 서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친숙해졌어요. 통일에

대해, 남북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라는 안 양의 말처럼 마지막날, 버스를 타고 남측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북측의 아침풍경을 신기함이 아닌 아쉬움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눈빛들이 하나둘 늘어갈 수록 통일은 우리에게 한발 짝 더 다가올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인디밴드 레이저본 인터뷰

“통일노래 만들고 싶어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디밴드 레이저본을 만나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과 통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 행사에 참가한 소감은.

= 비무장지대 통과와 금강산 등반 등 흥미롭고 즐거웠다. 그러나 금강산 등반 때 안내원들과 몇 마디 나누었을 뿐 북측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빨리 통일이 되어 마음껏 즐기고 함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을 알 수 있었다.

- 통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 같은 가수나 정치하는 사람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통일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전 국민이 통일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한반도 위기 언론보도 토론회

“한반도 위기의 본질 알려야”



지난 14일 열린 한반도 위기관련 언론보도 토론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드리워진 지금,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는 어떨까.

‘위기 속 남북관계, 언론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민주화연론시민운동연합 주최로 지난 14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다. 서재정 미국 코넬대 교수와 윤호진 한국방송영상산집진흥원 책임연구

원, 김은주 방송위원회 보도심의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선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서 교수는 “언론은 부시정부의 국제적 군사전략을 냉철히 분석,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북핵위기’라는 용어부터 ‘한반도 위기’로 바뀌어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위기’라는 표현이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의 본질을 감춘다는 지적이다.

윤호진 위원은 중앙 방송사와 신문사의 한반도 위기관련 보도를 ‘다면적 접근’ ‘맥락적인 이해’ ‘장단기적 추론과 전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방송자료와 기사를 유형별·논조별로 분석한 결과 SBS는 사실위주의 보도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다면적 접근과 맥락적 이해가 미흡한 보도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언론은 현재 위기상황에서 남한의 시민들은 대부분 방관자라는 사실을 ‘방관’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 운영상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의 비판이 주목을 받았다. 반전평화운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언론이 한반도 위기를 자주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9월,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다자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위기의 당사자인 우리 언론에 대한 독자와 시청자의 ‘감시’가 절실한 때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이주의 시사 키워드

방탄국회

상황 하나. “입었으면 좀 빨아 놔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큼직한 바지를 덧입으며 투덜거린다. 조금 전까지 같은 바지를 입고 있었던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미안한 미소를 짓는다. (경향신문 2003년 8월 11일자 민평)

상황 둘. “나와!” 유리문 밖에서 서늘 퍼런 칼을 든 검찰이 소리친다. 유리문 안 쪽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방패를 쟁기고 있다. (동아일보 2000년 2월 10일자 민평)

검찰이 ‘나오라’고 할 때 집어드는 방패, 국회의원들의 ‘공용’ 바지. 모두 ‘방탄국회’를 상징하고 있다.

방탄국회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제도를 이용해, 검찰출두명령을 받은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국회를 소집한 후 질질 끄는 것을 비꼬아 이르는 단어다.

오는 31일이면 회기가 끝나는 8월 임시국회 또한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정대철의원과 박주선(민주당)의원, 박명환(한나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했다.

애초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국회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압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제도는 98년부터 ‘남용’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일부를 국세청을 이용해 감추려 한 혐의로 서상목 의원이 체포대상에 오르자, 한나라당이 98년부터 2년 간이나 방탄국회를 소집했던 것이다. 회기와 회기사이에 휴일이라도 끼면, 서 의원은 지방으로 몸을 숨겼다는 2년 전 기사 한 토막,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듯 하다.

동국사랑의 한 길 걸어온 영원한 스승이시여

당신은 떠나지만 당신의 '정'은 제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편집자

학문연구 외길 인생 50여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터



임기중 교수
(문과대 국어국문학)

"내 몸은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내 정신과 마음만은 항상 이곳에 있을걸세." 미소를 머금은 채 담담하게 퇴임을 받아

들이는 임기중(국어국문학) 교수.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월명사의 '제암재'를 좋아한다는 그는 퇴임의 아쉬움을 이미 기쁨으로 승화해 버린 듯 하다. 59년 입학해 본교와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45년. 그는 약 반세기의 긴 시간동안 가사문학과 연행록 등을 수집, 정리하고 연구하며 본교와 함께 했다. "향가, 가사 등 그동안 내가 저술한 책에는 언제나 '동국대학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네. 책과 함께 우리학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때문이지." 본교와 함께한 시간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임 교수. 그는 학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선 유능한 교수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동국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애정은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이는 그의 체계적인 강의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작품의 원전검토부터 현재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까지 4~5단계로 이루어진 강의는 학생들이 고

전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고전문학은 현대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네. 작품 속에서 그 시대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는 강의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음으로써 고전문학을 학생들이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노력했다. "지난 여름방학 중에 학생들과 함께 설악산 대청봉을 등반했었네. 그들과 함께 하는 여행은 내게 생명력과 젊음을 느끼게 해 생활에 활력을 주지." 바쁜 연구 속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은 제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학문을 하기 위해 교수가 돼 오직 학문 연구라는 외길을 걸어온 임기중 교수. 그는 퇴임 후에도 새로운 연구실에서 연행록 완성과 학술진흥재단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학문연구의 외길 행진을 계속할 예정이다. '동봉양월지실(東峯涼月之室)'이라 이름 붙인 그의 새 연구실의 의미처럼 임 교수가 앞으로 학문에 있어 새로운 봉우리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민> mh705@dongguk.edu

"학내 구성원이 힘 합쳐 3대 명문사학으로 도약해야 할 때"



홍치유 교수
(이과대 물리학)

"가난한 시골 소년의 가장 쉬운 성공길은 공부였네." 대학에 갓 입학할 때부터 교수를 꿈꿨으며 숙스러운 웃음을 짓는 홍치유(물리학) 교수. "헌법은 고칠 수 있지만 자연과학 법칙은 절대적이지. 그 힘에 이끌려 물리학도가 되었지." 홍교수는 1958년 본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140여 편의 논문과 6여권의

역저를 편찬했다. 또한 반도체소재와 관련한 논문을 비롯해 우수한 연구성과로 논문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활발한 학문활동을 한 그에게 교장을 떠나며 남은 더욱 값진 재산은 제자들이다. "대학교수가 아니었다면 중·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을 걸세." 이처럼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그가 제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 교수

각하런 지금도 목이 메인다. "인생이 나이 순서대로 마감되는 것은 아니더군. 제자들 가슴에 묻은 스승의 마음이 오죽했겠나."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 난다. "3대 명문사학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네." 동국대와 인연을 맺은 38년의 시간동안 이과대 학장, 학생처장, 경주병원개원준비위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홍치유 교수. "학교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지금 퇴임을 하게 돼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마지막까지 학교에 대한 그의 걱정은 끝이 없다. "어미 닭이 쪼는 부분과 병아리가 나오는 부분이 일치해야 '알'이 깨지는 거네.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와 제자 관계도 이래야 하지." 오랜 시간 동안 동국 발전이라는 거대한 일을 부화시키기 위해 어미 닭 역할을 도맡아 온 홍 교수. 그 기간이 어미 닭의 3주가 아닌 평생이라는 점에서 그의 깊은 학교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희> gazzababo@dongguk.edu

퇴임교수 인터뷰

후회없이 '재밌게' 달려온 33년간의 여정



김재공 교수
(공과대 전자공학)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윽한 향기가 있어 더욱 매력적이라는 특국화. 반평생동안 '겸손'을 미덕으로 특국화처럼 살아온 한 교수가 있다. 학생들에게 역지로 꾸민 화려한 모습보다는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는 김재공(전자공학) 교수. "본교와 인연을 맺은 후 처음 맞은 식목일에 심었던 작은 은행나무가 어느새 향아를 가까이 뒀네. 이제 '때'가 된 것이지" 큰 어려움을 없이 이 순간을 맞은 것에 감사하다는 그의 말에서 주어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의연함이 느껴진다. 시골에서 보낸 학창생활. 초등학교 때 큰 소음을 뿜으며 달리는 기차, 빛을 내는 큰 확성기를 보며 전기의 매력에 빠졌다는 김 교수. 과학사전을 보며 호기심을 하나하나 채웠던 그는 전기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자공학과 교수로 자신의 진로를 정

했다. "난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네. 다시 태어난다면 교단에 설 것이네." 지난 70년 전임교수로 본교와 인연을 맺어 반 평생을 교단에 선 것이 만족스럽다는 김 교수. 그는 33년 간을 공부하는 재미, 학생들과 차를 마시며 문제를 풀어 나가는 재미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가 자신의 일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해서 일까. 요즘 학생들이 대학을 단순히 취업하기 위한 한 관문으로 생각하는 현실에 대해 "취업에 연연하며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교양 등 총체적인 것이 진정한 공부인데 말이지"라며 학생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했다. 연구와 가르침의 길에서 반평생을 걸어온 김재공 교수. 그는 퇴임 후에도 학문정진의 꿈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책의 저술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윗튼 없는 그의 앞날에 본교에서처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재미'가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희> hjs0228@dongguk.edu

"학문본질 추구 위해 끊임없는 노력해야"



이민섭 교수
(공과대 건축공학)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자들과 함께 호흡한 반평생의 시간을 정리해야 하는 지금. 낙화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는 교수가 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노장이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온화하게 미소짓는 이민섭(건축공학) 교수가 바로 그이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준 평면도 그리기 숙제에 큰 흥미를 느껴 건축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그는, 더욱 학문에 매진하고 싶은 열정에 교수로서의 길을 택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학생들의 친구로서 건축공학이라는 학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진정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즐길 줄 아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네." 이러한 그만의 교육 철학은 지난 68년 본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실현돼 갔다. 건축공학을 향한 그의

애정만큼이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누구보다 각별하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건축의 외양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네. 진정한 건축은 그 본질을 정확히 읽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말이지.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의 본질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세." 학생들을 위한 그의 당부에서 교수이기 이전에 인생 선배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온다. 이처럼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 교수는 퇴임을 앞둔 지금도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떠나기 위한 연구에 여념이 없다. 4년 전 내었던 저서 '도학연구'에 이어 건축과 자연원리의 상관관계를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건축입문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 숨쉬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이민섭 교수. 퇴임 후에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가족과의 시간 또한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모습 속에 소박하고도 따뜻한 열정이 묻어난다. 학생들을 향하던 뜨거운 열정이 새롭게 시작될 그의 인생 속에 늘 빛을 발하길 기대해 본다. <은> bob83@dongguk.edu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자아실현 이뤄내길"



김현규 교수
(사범대 교육학)

온 몸에 빛을 발하며 경기장 안을 거친 숨소리와 팔방울로 채우는 선수들. 그들이 진정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뒤에서 열정을 토해내며 깃발을 흔드는 서포터즈들이 있기 때문이다. 평생동안 음악인들의 든든한 서포터즈였던 김현규(교육학) 교수. "칸트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네. 교수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진정한 교육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김 교수. 그는 본교 강단에 서는 순간부터 스스

로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학교 발전과 학생을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었다. 본교에서 강사로 있는 동안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으며, 사범대 학장에 재직할 당시에는 현대화된 교수방법을 연구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가르침을 주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96년도에는 미국의 LA동국로얄유니버시티의 준비위원으로 활약하며 '세계로 가는 동국'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힘썼다. 이런 그의 동약에 대한 애정 때문일까. 김 교수는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에 대한 걱정에 여념이 없다. "연못에 이르러 물고기를 잡고자 하면 돌아가서 그물을 짜리는 말이 있잖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 대학은 미래의 자아실현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지 결코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는 김 교수. 학생들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충실한 그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의 담부에서 선수를 바라보는 서포터즈와 같은 애정이 비춰진다. 첫 강의, 자신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던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김현규 교수. 검은 머리가 반백이 되도록 음악의 든든한 지킴이이자 팬으로 살아온 그는 이제 '자연인'의 자세로 휴식을 취할 생각이다. 그는 이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염려를 잠시 벗어 두겠지만, 그의 따뜻한 '동국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설> dbswls@dongguk.edu

2003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한 만수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본교 국어국문 졸
- 본교 국어국문 박사
- 전 순천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 현대문학 전공



김 소연 (이과대학 화학과 전임강사)

- 고려대 화학 졸
- (미)Cornell대 Biochemistry 박사
- 전 LG화학 기술연구원 과장
- 생화학 전공



김 건욱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조교수)

- 본교 전자공학 졸
- (미)Florida대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 전 (미)Univ. of Florida 조교수
- Parallel Processing 전공



최 종수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 한양대 건축학 졸
- (미)Wisconsin-Madison대 건축공학 박사
- 전 (미)Univ. of Wisconsin대 Teaching Assistant
- 건설관리 전공



김 지현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화학공학 졸
-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 전 산업자원부 사무관
- 생물화학공학 전공



조 경운 (정보산업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전임강사)

- 본교 전자계산학 졸
- 본교 컴퓨터공학 박사
- 전 영신대 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임강사
- 컴퓨터공학 전공



이 승철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임강사)

- 본교 지리교육학 졸
- (영)Sussex대 지리학 박사
- 전 IT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지리학 전공



조 애숙 (인문과학대학 일어일본학과 전임강사)

- 한양대 일어일본학 졸
- (일)筑波대 응용언어학 박사
- 전 한양대 시간강사
- 응용언어학 전공



장 인실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전임강사)

- 고려대 영어교육 졸
- (미)노스캐롤리나 채플힐대학 교육과정 및 지도 박사
- 전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원
- Curriculum and Instruction 전공



조 현석 (한의학과 침구과 전임강사)

- 본교 한의학 졸
- 본교 한의학 석사
- 전 세명대 침구과 진료과장
- 침구학 전공



김 상익 (의학과 흉부외과 부교수)

- 인제대 의학 졸
- 인제대 의학 석사
- 전 을지대 흉부외과 조교수
- 흉부외과 전공



정 호근 (의학과 일반외과 조교수)

- 본교 의학 졸
- 본교 의학 박사
- 전 본교 포항병원 전문의
- 외과 전공



김 대곤 (의학과 비뇨기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졸
- 본교 의학 석사
- 전 본교 경주병원 전문의
- 비뇨기과 전공

200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박사학위 (총66명)

철학 (4명)

- ▲이상섭=법화·일승사상의 연구
- ▲박영길=상가리의 명색현현(名色顯現)설 연구 -Brahmasutrabhasya를 중심으로-
- ▲김창선=북한 주체사상의 사회·문화적 기능
- ▲구본술=불교의 생유(生有) 연기에 관한 연구

문학 (4명)

- ▲오석운=삼호달치(三好達治) 시 연구 -서정성과 주지적 경향을 중심으로-
- ▲신현웅=후한서·삼국지 한전 연구
- ▲오경후=조선 후기 승전(僧傳)과 사지(寺誌)의 편찬 연구
- ▲이승환=한국 대중영화의 현대성 재현양식 변화 연구 -1980년 이후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재현을 중심으로-

교육학 (2명)

- ▲최운선=수업의 일상적 구조와 교사의 수업변환 관계 연구
- ▲이근영=교육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대상기간: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법학 (2명)

- ▲하갑래=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안광찬=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반도 작전지휘권을 중심으로-

행정학 (1명)

- ▲임하규=아동보육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 (4명)

- ▲조호대=재난관리사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덕영=한국 경찰의 학습조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이강종=한국경찰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 ▲조선호=경찰의 지역사회 범죄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제학 (2명)

- ▲최두식=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지역별 자립도와 지역간 보완성 분석
- ▲신경수=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절화현상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경영학 (3명)

- ▲유명식=배당발표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최혁준=한국중소기업의 인터넷마케팅

수출설계에 관한 연구

- ▲김미정=e-비즈니스 문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e-비즈니스 기업의 사례분석-

지리학 (1명)

- ▲이형근=중국 상하이의 상업공간 형성과 경관변화(1843-1915)

이학 (6명)

- ▲류영선=MBE법으로 GaAs 기판 위에 성장된 Hg_{1-x}CdxTe 박막의 특성 연구
- ▲최배진=불꽃 원자흡수분광광도계의 제작 및 분진중 미량금속성분의 측정
- ▲정영미=단위무응답이 있는 집락표본에서 재보정법에 의한 가중치 조정에 관한 연구
- ▲이영보=산림생태계 내 한국산 지표성거미류(Ground Dwelling Spiders)의 분류 및 생태학적 연구
- ▲최영아=재혼자의 노년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김영진=청량음료수가 치아법랑질의 칼슘과 인 용해에 미치는 영향

농학 (1명)

- ▲이은상=가공용 감자 품질향상을 위한 작형별 재배방법에 관한 연구

공학 (12명)

- ▲정경권=확률 분포를 이용한 LVQ의 패턴 분류 성능 개선

▲정용기=Web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김미정=e-비즈니스 문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e-비즈니스 기업의 사례분석-
- ▲손형길=다중 등급보안 구현을 통한 리눅스 서버 보안성 향상
- ▲한준택=분산 스페어링을 갖는 스트라이프 미러링 RAID 구조
- ▲허정호=시간적 및 공간적 지역성에 기반한 RAID 5의 2단계 디스크 캐시
- ▲서상현=축삭계열 진공인터럽터의 전자계 현상 해석 및 전자수송계수에 관한 연구
- ▲김용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폐기물 매립지의 거동 및 침하특성 연구
- ▲모승준=학교건축의 음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 ▲권광수=중소형 건축 설계경기의 운영에 관한 연구
- ▲최취경=플랜지-웹 두께비에 따른 플레이트거더의 전단좌굴강도
- ▲고원방=한국산 경질소맥 금강의 제빵에서 가스 보유력 향상에 관한 연구
- ▲장경원=통조림관 내면 코팅재질에서 BPA 이행에 대한 살균조건 및 비스페놀류의 가수분해 특성

한의학 (18명)

- ▲민건우=측백엽의 항비만 효과 연구
- ▲허성=백강잠의 중추신경계 약리효능에 관한 연구
- ▲신상국=생강 및 Zingerone의 Peroxynitrite 제거 효과
- ▲이수홍=합곡(LI4) 자침 전후의 생체전

위 변화에 관한 연구

- ▲최호정=산사 분획의 혈관이란 활성과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 ▲박석우=홍화자가 난소적출로 유발된 흰쥐의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
- ▲정상신=황금의 간보호 활성 및 Cytochrome P450 발현조절에 관한 연구
- ▲한을주=청열사슴탕이 관절염의 소염, 진통 및 해열작용에 미치는 영향
- ▲김영미=산수유의 유리자유기에 의한 간 손상 보호효과 및 기전에 대한 연구
- ▲김한규=Inhibitory effect of Gejibokryung hwan on intracellular Ca²⁺ mobilization in activated platelets
- ▲권태식=Inhibitory effect of Salviae miltiorrhizae Radix on superoxide generation by activated rat microglia
- ▲안형준=Inhibitory Effects of Deer Antler Herbal Acupuncture Solution on Cathepsin S and L Activity in RA Model Mice
- ▲임한제=경맥진단의 맥진법이 기구맥의 촌관측(寸關尺) 육부정위맥진법으로 연변된 연유에 관한 연구 -맥진법의 변천 추이에 관한 연구-
- ▲이동규=Inhibitory Effects of Scutellaria barbata D. Don on Uterine Leiomyoma Proliferation through Cell Cycle Analysis
- ▲강필주=Effects of Drynariae Rhizoma on cytokine-induced production of nitric oxide synthases in mouse calvarial bone cells
- ▲조형래=Scutellaria barbata D. Don induces

c-fos gene expression in human uterine leiomyoma cells by activating β2-adrenergic receptors

- ▲조현석=Effects of Buthus martensii Karsch herbal acupuncture solution on IL-1 induced expression of iNOS, PGE₂ and cyclooxygenase-2 in human chondrocytes
- ▲이지연=Differential regulation of protein kinase C activity by modulating factors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uonymus alatus (Thunb.) Sieb in human myometrial smooth muscle cells and uterine leiomyoma cells

의학 (6명)

- ▲박승운=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FEX-2
- ▲배근량=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흡연 예방정책을 및 항체 양성률에 관한 연구
- ▲독고양=Neuroprotective effects of the flavonoids isolated from Opuntia ficus-indica var. saboten
- ▲이훤=신장암 Caki세포주에서 Arisostatin A에 의한 Heat Shock Protein 70의 발현과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
- ▲민석기=흰쥐에서 십이지장 내용물의 역류로 유발된 식도병변의 Cyclooxygenase-2 및 microsomal Prostaglandin E synthase의 발현
- ▲장혁준=흰쥐에서 성호르몬을 이용한 요석 형성 시 osteopontin 발현 양상 및 결석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과 EDX(energy-dispersive X-ray) 분석

석사학위 (총405명)

일반대학원 (151명)

문 학	강성진	김귀주	김영일	오진호	주상훈	정 철	문제선
민명숙	박부자	박소영	배경아	이근표	지일선	홍지연	
변재형	염점자	염중섭	이갑순	노경학	이상용		
조아담	조태영	문선희	하미경	공 학	김성수	성후섭	이민정
나혜숙	권경록	박관식	하윤희	김고운	김춘호	신홍섭	여인호
황정화	니시아미준코	김미경	김대근	정선미	오준태	이정남	김현정
김용환	손병용	구자양	김문경	김홍태	안홍찬	장인근	권희숙
양지윤	공유정	김정선	박상준	김선영	강수훈	이후철	임형준
이경희	이분빛	이분희	이혜원	한의학	강미선	구영희	김대근
최혜정	모미나	박민정	손효원	김우영	김태영	김형준	노도환
염창선	윤진화	윤현식	이미경	도미화	뢰영성	류승엽	박정희
이지은	임상래	장익준	조의숙	백성욱	사은호	안중환	오경환
조준희	함유리			윤상구	이상택	이수진	이재은
미술학	김태희	이재연	주도양	이현우	장용석	장태현	정수현
법 학	채 순	김경한	심정국	정운관	최용건	황태현	
이진욱	전영주	김도희	김성진	의 학	이 관	김재광	김해균
정치학	김도희	김지숙	김성진	백승덕	원달호	윤인재	이동기
경찰학	신성식			이원재	이형일	임성욱	정대연
경영학	이민주	이해석	임정환	최우혁	최운석	유태호	
강연식	김규명	황범용	김병욱	영상정보통신대학원 (1명)			
박은아	장재철	이정훈		영화영상제작	박강미		
상 학	김성필	노정운		불교대학원 (22명)			
이 학	나종호	성은정	하범철	문 학	김태효	임현진	허호준
강민호	권정우	김성태	이상구				
안미영	황수진	김동현	민승기				

강동구	서분희	안우환	조기호
사회복지학	김영철	김재성	김중홍
김현종	김영훈	박우자	배선운
이강희	이광호	이명순	이정민
임혜영	최유호	하은호	한부영

행정대학원 (59명)

행정학	강병덕	길현섭	김진오
신호길	윤병열	최광재	김병곤
김현우	박성규	오세웅	우상규
이광영	이광재	이선민	이창현
정진섭	채연석	최종희	하정원
허창희	권태은	김영택	김은경
마경석	박정국	성춘광	안명선
윤철규	임대순	조구현	주의영
홍명희	신 정	강순욱	김경희
김상철	김영래	김옥희	김인경
김태훈	김희진	남옥희	민경란
박영수	박재용	배금순	오은화
유경상	이선아	이창희	이태숙
임정남	임진하	차경아	최정아
강원국	권태오	서유석	장규운

경영대학원 (43명)

경영학	김설매	이동준	이홍길
곽연구	권태유	김동한	김은희
김재길	김훈희	류세형	박영준
송성용	유한주	이광남	이광복

이규준	이병호	정재행	정화숙
조홍석	한운섭	한창열	김명돌
김성진	박준범	이기성	임진홍
곽종구	김성화	김영식	김종만
서정욱	윤철한	이상철	전부욱
정병철	조경진	윤 환	김상익
김재희	김한례	유희철	이영주

교육대학원 (88명)

교육학	강호정	권혁규	김경림
김보명	김윤경	민경대	박영란
배명자	손경표	심태은	임정우
최윤정	최효순	민 해	조 울
곽희라	구영경	김경수	김관아
김미혜	김민경	김상희	김성순
김수금	김우정	김은실	김익수
김주현	김태우	김하얀	김향선
남성희	문주열	문혜선	민병기
박동수	박동석	박성숙	박수현
박시현	박혜경	박훈희	변현수
서준석	성운정	송민수	신승희
신신욱	신주영	안지영	양수정
엄정식	엄동연	오영호	유성현
윤미미	윤숙영	윤혜화	이미란
이성희	이형화	임원택	장철수
전경화	전유희	전은림	정유진
정재욱	정지운	정창현	조선자
조성희	조정현	조진영	조진이
진선일	채현철	최규선	최명욱

최미라	최성오	최용구	최종택
최주희	최현주	최해진	허인영
홍희수			

언론정보대학원 (21명)

언론학	고범중	김유라	김유식
나종하	박재우	배정호	서민호
서영수	심승보	이수경	이용식
하동근	조왕현	박진우	박현진
경영학	심재상		
문 학	권광희	김은경	임재현
최영록	황은정		

산업기술환경대학원 (19명)

공 학	안태인	강승현	김만장
김진일	박정호	이유진	박정섭
박진영	이광우	이수우	이수창
장준환	정용민	최보순	박선에
조운준	허동민	김성우	최진호
문화예술대학원 (20명)			
문 학	김광기	노미진	박분정
송지운	이미희	황영경	박재현
유정주	허성미	허정원	김석환
김승국	박춘애		
예술학	김영렬	최미숙	

미술학	권근자	신광희
음악학	박기영	유현선
예술경영	원준호	

국제정보대학원 (15명)

공 학	구자진	권헌준	김대형
김용수	김인석	김진원	류문형
박정국	배신호	위성표	이성훈
이의경	이인희	장상수	차현영
불교문화대학원 (5명)			
불교학	허정화	강선태	

본교 문예창작학과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가 올해로 41회를 맞이했다. 예선에는 시 376명, 소설 124명, 수필 235명의 전국고등학생이 응모했으며, 이 중 시 100명, 소설 39명, 수필 78명이 본선에 참가해 글솜씨를 뽐냈다. 올해는 준비된 여러 주제 중 추첨을 통해 주제결정을 했는데 시-하늘, 소설-홍수, 수필-신발이 결정됐다.

본 지면에는 지난 6월 14일(토) 성황리에 끝난 제41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에서 수상한 작품을 일부 게재한다. 편집자

차상

감나무와 하늘

연초록 새순이 봄별을 빨며
손바닥만하게 커 나가고
그런 감나무가 사랑스런 하늘은
고운 아지랑이를 피워올려 감나무를 보듬어 주었다

4월 하늘에서 내리던 눈은 부드러운 담황빛

눈송이에 자꾸만 나리는 벌들을 손사래 치던 하늘은
눈이 내려 시린 자리마다 애기똥만한 초롱을
감나무가 반짝반짝하게 매어달곤 하는 것이었다.

갈매빛 잎사귀 사이로
조각난 하늘이 열리고
아직 제 빛을 찾지 못한 어린 녀석들을 위해
하늘은 더욱 푸른빛을 발하며 때갈 좋은 별을
한 움큼씩 흩뿌리곤 했다

하늘에 온 몸을 내맡기며
단꿈을 꾸던 풋풋한 것들은
저들의 둘레로부터 별을 빨아올리며
이제 제법 흥조를 띤 처녀티가 나곤했는데
하늘이 키운 감나무일수록
빛깔이 곱고 향긋하다는 뒷집 할매의 말처럼
낮은 토담을 끼고 내려온 홍시 한 소쿠리에
하늘의 향내가 어리어
참으로 맛갈스럽게 눈 부시던 날

씨가 지 쪽쪽 빨며 맛있게 홍시를 먹던
우리 다섯식구 두 볼이 감빛으로 곱게 물들어
덜 여문 하늘에 단내를 톡, 톡 뱉어놓던 그런 날이었다

이 현 정 (삼현여고 3학년)

차하

돌의 날개

1.
수직으로 깎아 내린 비랑 아래
길게 누운 그늘 속에
한없이 움츠린 나는

모·난·돌

오늘도 등에 달린 투명한 날개를
보이지 않는 속도로 파닥거린다
몸도, 마음도, 하늘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

2.
언제였을까?
누군가 무심코 내지른 발에 차여
비랑 아래로 굴러 떨어진 나

오늘은 개미들이 줄지어 머리를 짓밟고 지나갔다
어제는 바람이 내 몸을 이리저리 밀어 내도
나는 날개짓하며
한없이 침묵할 뿐

3.
비가 내린다
상류에서 밀려온 흙탕물에 쓸려
나는 아래로 아래로 떠나려 간다

나무뿌리, 돌조각과 거친 물살에 부대껴
전신이 깨지고 날개조차 이곳저곳 찢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내자신의 구석구석을 깎아내어
몸도 마음도 가볍게 그리고 둥글게 해야 한다는 것
나는 안다

4.
진창 속에서
젖은 날개를 밀린다

한 번, 두 번
다시 날개짓을 시작하고,

문득
불어오는 바람 틈에서
하늘로 향하는 길을 본다
어렵듯하게

박 지 회 (과천외고 3학년)



본선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단 기념촬영

수상자

장원



분당중앙고 3학년
정 선 우

차상



삼현여고 3학년
이 현 정

차하



과천외고 3학년
박 지 회

차하



육천고 3학년
강 세 희

장원

하늘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남향교실과
마주앉은 수입가구점 벽돌건물 옥상
덩굴식물에 둘러싸인 날카로운 피뢰침 위
아얀 새 한 마리가 있다
얇은 발가락 셋으로 피뢰침에
워태롭게 걸터앉아 있다
가늘게 내리는 빗줄기에 젖어 눅눅한 날개
유리창 너머로만 느껴지는 뜨거운 바람에
파닥이며 말리고 있다

창문이 없는 붉은 벽돌건물
입을 굳게 다문 듯한 답답함에
북고 파랑고 푸른색 볼펜들이 서걱대는
교실로 나는 고개를 돌린다
언제부터 날개를 달고 있었는지
외색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등에는
눅눅히 젖은 날개가 접혀 있다
젖어버린 날개가 축 늘어진 채
아이들의 눈은 칠판으로 책으로
무지런이 옮겨 다니고 있다
밖을 내다보는 나에게 짝은
어딜 보느냐고 쿡쿡 찌른다
어느새 날씨는 활짝 개어 있다
새는 두 날개 구석구석 살핀다
몇 번인가 머뭇거리던 새는
비 갠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른다
파란 창공에 아얀 금 굵고 있다

'언젠가 우리들도 이 눅눅한 날개 가볍게 털어버리고
파아란 창공을 박차오르며 날아가겠지'

새가 떠나간 자리에서는
햇살에 잘 마른
숨이불 냄새가 난다

정 선 우 (분당중앙고 3학년)

심사평

개성적인 글감 해석이 시의 힘 질 좋은 문학적 상상력에 마음 든든

시의 힘은, 다른 어느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글감을 어떻게 개성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데에서 나온다. 글감의 개성적 해석이란 대상을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내면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처럼 글감이 개성적으로 해석되고 보면 글의 구성성이 마련되면서 표현 또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구사로 갈 수 있다.

장원으로 뽑힌 정선우 양의 '하늘'은 새를 매개로 어린 학생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선명하게 잘 그린 작품이다. 화자는 교실안에 앉아서 창밖 건물의 옥상 피뢰침에 오도커니 앉은 새를, 그것도 비를 맞고 앉은 새를 바라본다. 그러다가 교실안 학생들이 실은 젖은 날개를 잡고 있는 또다른 새들임을 발견하는 것. 이는 그들도 곧 새처럼 푸른 창공을 날게되리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차상 작품인 이현정의 '감나무와 하늘' 역시 감나무를 매개로 하늘이 어떻게 감을 맛있게 익히는가를 잘 펼쳐주고 있다. 애기똥만한 초롱에서 홍시로 익기까지의 감 익는 과정을 깔끔하게 구조화한 것이 그것이다. 대상의 세부를 감각적으로 포착하여 묘사하는 능력도 학생답지 않게 탁월하다.

차하 박지희의 '돌의 날개'는 돌을 화자로 삼아 '몸도 마음도 가볍게 그리고 둥글게' 해야 하는 나의 당위를 설득력있게 그린 작품이다. 그러면서도 당위를 내세우는 작품이 흔히 빠지기 마련인 계몽성을 숨치않고 피하고 있어 글 쓰기 훈련이 만만치 않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반면, 강세희의 '하늘'은 '간장 담그는 이야기'를 축으로 삼는 차상의 새로움이 돋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몇군데 표현의 미숙함을 벗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다. 앞으로의 분발을 당부한다.

이번 백일장 작품들을 통독하며 우리 심사위원들이 느낀 점은 작품수준이 예년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다. 흔히 인문적 교양의 위축이나 문학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은 이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이같은 질 좋은 문학적 상상력들은 마음 든든한 것이 아닐수 없다.

박제천 (문학이카데미 대표, 시인)
신경림 (본교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 시인)
홍신선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

차하

하늘 - 간장이야기

항아리 속으로 하늘이 스며 들었다

마당으로 들어온 바람
모퉁이부터 훑어 지나가고
할머니의 실루엣으로 서성이던
항아리의 그림자, 해를 등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검버섯 같은 것이
하늘이 흐르는 방향으로 떠 다니고

후두둑, 떨어지는 모과나뭇잎 따라
할머니가 뜰로 나왔다
햇살이 가득 들어선 항아리에
할머니의 지문이 텃 임혀지고,
묵혀둔 기억을 어루만지듯
할머니는 매주를 꺼낸다
간장은 햇볕을 잘 받아야 되는겨
항아리의 뚜껑이 열린다
할머니가 지나간 자리
검은색의 잔 범새가 오래 부풀려 진다
뜰로 모여든 바람,
바람결에 항아리 속으로 하늘이 머문다
자꾸만 자라던 검버섯 때문이었을까
할머니의 모습이 항아리같은
모습으로, 봉분이 되었다

하늘 따라 흘러간 할머니의 모습이
항아리 속, 간장 위로 스며 들었다
하늘은 오랫동안 항아리 속에 머무르고

강 세 희 (육천고 3학년)

장원

홍수

수상자

할매의 주문

차상

아빠가 물위에 털썩 앉아 목구멍으로 우셨다
꺼꺼대는 소리가 빗소리에 가려
조그맣게 들렸다

사흘 째 비가 퍼붓는다. 내리는 비가 아니라 퍼붓는 비다. 아무리 장마철이라지만 사흘 연속으로 오는 비가 야속할 따름이다.

옆 집에는 고스톱판이 벌어졌나보다. 비가 와서 눈에 나가지 않은 아저씨들이 모였을 것이다. 쟁 하고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한 번 들릴 때마다 아저씨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우리 금싸라기들, 비는 잘 맞고 있는지나 보고 와야 쓰겠네."

진수네 아저씨가 눈에 가셨다고 나서는 것 같더니 30분도 채 안 돼서 돌아왔다.

"그래, 금싸라기들 비는 잘 맞고 있던감?"
"흐흐, 당연하져, 고개 뺨뺨이 세우고 잘 맞고 있더구먼."

"하이고, 비가 말이여, 이렇게 때에 맞춰서 와 주기만 하면 농사짓기 훨씬 수월 할턴디 말이여."

부엌에서 나온 엄마가 작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아이고, 속 좋은 소리될 하고 있구먼."
엄마의 한숨 소리가 말소리보다 더 크게 세어 들어왔다. 망할놈의 비, 망할놈의 비.....
아빠는 인삼 밭에 나가셨다. 인삼.....

인삼은 키우기가 어려운 작물이다.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금세 말라 죽어버리고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뿌리가 금세 썩어버린다. 하지만 인삼 농사라는 것이 성공만 하면 괜찮은 수익이 보장된다. 아빠는 그 수익에 기대를 걸고 인삼 농사를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농부들에게 빛만 얹어 주는 쌀 농사에 비해 인삼 농사는 아빠에게 비상구요, 새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빗까지 연이 시작한 첫 인삼농사는 제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어릴때부터 벼농사만 지어 본 아빠에게 인삼 농사가 그리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썬 말라 푸석푸석한 인삼을 아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뿌리 끝부터 잘근 잘근 씹었다.

그 다음해 인삼들은 뿌리가 뿔뿔 썩어 있었다. 가뭄으로 실패한 아빠의 지나친 물 욕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그만두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농협 빚이었지만 아빠의 오기는 그만 둘 줄을 모르고 다시 한번의 실패를 가져왔다.

그렇게 세 번을 실패하고서야 아빠는 인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다. 이제 웬만한 장마나 가뭄은 아빠의 인삼들을 어찌지 못할 듯 했다.

"한 사오년만 잘 키우면 빚은 다 갚고도 남을 것이여."

그리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3년동안 우리 집은 인삼 때문에 울다 웃다를 반복했다. 봄에는 가뭄지고 여름에는 장마지고..... 때마다 우리 가족은 인삼 밭 물 대기, 물 빼기로 고생해야 했다. 하지만 인삼에 거는 아빠의 희망이 너무 컸기에 가족들 역시 불평 따위는 없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에 강원도 일부지역이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보도에....."

아빠는 텔레비전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다. 여기저기 물에 잠겨 버렸다고 했다. 충청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오늘 밤이 고비란다.

자정이 되어 갈수록 빗줄기가 강해졌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들 수가 없었다. 한참을 누워서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루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후에는 말소리로 들려왔다.

"이 비오는데 밭에 나가서 뭘 어찌겠다고 우산은 챙겨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 있으면"
아빠가 인삼 밭에 나가겠다고 엄마와 실랑이를 하고 계셨다.

한참을 실랑이 하던 끝에 결국 아빠가 밭으로 가셨다. 내가 나가자 엄마도 부스럭 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빠 나가셨어?"
"우산이란 우산은 다 챙겨두고 나가셨다."

"엄마는 뭐하는거야?"
"바가지랑 양동이 같은 거라도 챙겨가지고 가 봐야지. 4년 농사가 헛수고가 되게 생겼는데....."

엄마는 물이 많이 고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혼자 나가려는 것을 내가 붙잡았다. 나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엄마를 따라나서자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어쩔대니?"
힘이 쭉 빠지는 소리였다. 우리 가족모두,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우리 밭에서 물을 퍼 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며칠 동안 위태롭게 버텨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인삼의 뿌리 끝은 썩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엄마와 내가 나가자 밭에는 아빠가 열심히 물을 퍼 내고 있었다. 밭은 이미 물이 잔뜩 고여 아빠의 발목 아래까지 차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있는 반대쪽 구석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였다. 동생이었다.

"잠이 안 와서요....."
분명히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빠보다도 먼저 나와 물을 퍼내고 있었나보다.

밤 새 물을 퍼 냈지만 물은 점점 더 위로 올라왔다. 계속 물을 퍼내던 아빠가 일어나더니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소리쳤다.

"이놈의 망할 비! 4년은 잘 참더니마는! 밭에 내리지 말고 내 목구멍으로 퍼 부어라! 내 뺨속에 홍수를 내든지 맘대로 하고 밭에는 그만 내리라는 말이다!"

아빠가 물 위에 털썩 앉아 목구멍으로 우셨다. 꺼꺼대는 소리가 빗소리에 가려 조그맣게 들렸다.

나는 다른 구석으로 가 물을 퍼냈다. 자꾸 눈물이 났다. 이놈의 비, 망할 비.

밭에도 홍수를 내드니만 우리 가족 마음에도 홍수를 내는구나..... 나는 희망없는 물 퍼내기를 멈추지 않고 울었다.

이 현 주 (분당중앙고 3학년)

장원



분당중앙고 3학년 이 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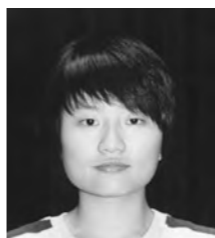
논산여고 3학년 한 아 름

차상

차하



서문여고 2학년 문 아 름



춘천여고 3학년 김 승 원

차하

심사평

응모작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장원수상작 부분적 한계 극복

현장에서 주어진 제목에 맞춰 짧은 소설을 쓰기는 매우 힘들다. 주제를 정한 뒤 그것에 맞는 화소들을 골고르고, 자신의 세계관으로 여과하여, 상상력을 얹어 형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 통일성 있는 구조를 짜맞춰야 하는 것이다.

응모작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위의 그런 언덕을 넘어서는 데 하나씩 한계를 보여, 수상작을 고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차상 한아름의 '할매의 주문'은 홍수로 인해 남편을 잃은 할머니의 아픔을 주술의 모티브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분량이 적고 홍수 체험의 리얼리티가 부족하고 결말 부분이 약화된 아쉬움이 있다.

장원 이현주의 '홍수'는 위에서 말한 고비를 거뜰히 넘어섰다.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존재의 숙명적 저항과 생존감 같은 표현이 돋보이며, 글을 위하여 선택한 화소들을 조정 배치하는 균제의 힘이 탁월하다. 그리고 감동적인 주제의 울림도 우수하다. 장원을 축하하며 전진을 기대한다.

이원규 (본고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소설가)
장영우 (본고 문예창작학과 교수)
황종연 (본고 국어국문학과 교수)

남기고 싶은 한마디

△상 좀 많이 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
△오늘 너무 힘들었고요. 밥 시간 너무 길어요.
심심해~
△손짓 사랑회 공연 멋있었어요.
△여기 3번이나 왔는데... -너구리(03)
△내 친구 여기 '수시' 썼는데 불게 해 주세요.
△명호 오빠 군대 잘 갔다와요!
△주제가 너무 흔한 듯...
△"하늘" 사랑해야지 -나환제
△보고싶다 04학년 -국문학과 호서
△끝까지 쓰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아까는 억울한 기분에 울었는데(전대 백일장 포기하고 있음.) 솔직히 하늘 너무 흔해요.
지금은 모든 게 잘못.
그래도 잊지 못할거예요.
-논산여차 고등학교 대박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 학교 꼭 온다. 반드시!
△좋은 경험이었다. 대학교 안에 들어온 것은 이곳 동대가 처음이다. 글을 끝까지 썼다는 것에 만족한다. 문창과선배들도 훌륭한 인물들이 되시길... -의정부에서 상경한 소녀

△대학교 가기 위한 글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글을 썼습니다. 민ץ
△시간 너무 부족해요.
△바다 건너 어렵게 왔는데 제 실력 발휘 못해서 너무 아쉽다. 시간 더 줄거면 10분만 더 주시고작 5분이라니... 상 받긴 글렀지만 내 실력은 뼈저리게 느끼게 한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들 건필 합시다. -선소년
△식권 받고 공연한다.
△등단하세요.
△의자 기억거리고 춤고...
△중강당 너무 추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친구랑 같이 서울 왔다.
은 김에 상 타기엔 좋겠다.
△맘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상 안타도 상관없습니다. 글을 한번 더 집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서울 통해 온 걸로 만족합니다. 하하 다음에도 또 와서 글 쓸 수 있길...
다들 너무 잘써서 부끄럽지만 더 노력해야죠.
-정명 여자 고등학교 한아름
△광문 요리부여 영원하라.
△장원은 누구냐? 나다

△가자!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동대여인, 제일 예쁘더군요.
△백일장 참가자들 건필하세요.
△문창과 멋쟁이
△정말 오고 싶어요.
△동대문창 짱!
△글까지 열심히 하세요.
△동대문창 왜 이렇게 좋아?
△동국대 멋쟁이~
△우린 꼭 뵈기 될게야.
△신경림 시인 사랑해요.
△동대 문창 03 수고했다.
△누나를 중학생 같아요.
△창호오빠가 더 중학생 같아요.
△아니다. 초등학교 같ды.
△아니다. 유치원생이다.
△분홍색 누나! 시집갈게요.
△천하를 제압하는 동대문창으로 오세요.
△한국문학의 태백산맥 동대 문창
△처음 나왔는데, 다 못써서 안타까워요.
좋은 경험이었다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신 분들 감사해요.

△좋은 결과가 꼭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04학번으로...
△누나 너무 예뻐요. 꼭 동대 올게요.
△검정 옷 입은 누나 귀여워요.
△민족동국! 창년예술! 천하제압 문예창작!
△상을 탈 수 없다 해도 만족합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마음 편히 글 썼습니다.
말은 잘 안되게 썼지만...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촌놈 단단을 위해 올라요.
△동대 오니까~ 대학생 되고 싶어요~♡
△좀 더 초조해지지 않기 위한 걸음으로 삼고 돌아갑니다. 행운이 있기를.
△아쉬움만 남네요.
욕심을 버리는 일은 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욕심인건 알지만... 행운이 있었으면...
△몇 년째 같은 기념품 바꾸었네요.
제작년에 오고 또 왔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올해내 내 심대로 끝내니까.
열심히 했고, 후회는 없다!

△다음엔 꼭 상타자. 시골소녀 서울 왔다감.
△시제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람. -04학번이 씬
△학교가 생각외로 좋다~!! 2시간 40분.
길다고 하면 길지만 내 생각을 정리하긴 짧았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나 04학번 문예창작과 시켜주세요!
△처음 왔는데 재미있어요. 또 왔으면 좋겠어요.
△동국대 백일장 처음 워본다!
불교적으로 써야 하는가 싶어서 오기 꺼렸지만,
아니어서 다행~ 모두 결과 좋을 순 없겠지만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돌아가는 기쁨!!
20년후에 최고의 시인이 되어 다시 오겠다!!
△주제... 걱정 되었는데
좋아하는 것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좋은 결과보단 쓰고 싶은 걸 써서 좋아요~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3시간이란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만큼.
△시속으로 빠져들지 못한 듯 하다.
꼭 다시 오고싶다. 04학번으로.

장원

신발정리

동생이 기억하는 건 신발정리뿐
아빠의 구두만 계속 만지작거리

지난 금요일은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 사람들이 심방을 오는 날이었다. 엄마는 손님 맞을 준비에 부엌과 거실을 바쁘게 왔다갔다하고 계셨다. 동생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서 낮잠을 자는 모양이라고 내뱉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동생이 잠든 사이에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아니, 애가 또……. 현아야 좀 나와봐라.”

한창 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나 있던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현관에 동생이 누워있고 앉아 있었다. 현관 조명이 깜박이다 꺼졌다. 나는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동생이 무얼하고 있는지 알았다. 신발정리였다.

현관 가득 벌여 놓은 신발들에 기가 막혔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내 착각이었던 모양이었다. 신발장은 모두 열려 있었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잡자고 있던 신발들은 모두 현관으로 나와 있었다. 동생은 열심히 신발의 짝을 찾아주고 있었다. 엄마의 굵이 꺾어진 뺨쪽구두들, 얼마 신지도 않고 신발장에 처박아버린 내 운동화, 슬리퍼, 샌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틀어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어찌면 좋으니, 하는 안타까운 눈빛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눈을 외면하고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동생의 저런 모습은 정말 보고싶지 않았다.

동생은 세 살 때까지 여느 아이들과 똑같았다. 오히려 언니인 나보다도 가위질도 잘했고 말도 푹부러지게 했다. 어느 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후, 동생은 변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고 ‘엄마’라는 발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생은 갓 태어난 신생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동생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신발정리’뿐이었다. 나랑 ‘누가 더 신발정리를 잘하나’를 두고 시합했던 기억이 조금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동생은 아빠신발과 내 운동화를 구별할 줄 알았다. 다만 동생은 좌우를 구별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종종 왼쪽 신발이 오른쪽에 놓여있곤 했다.

그 애는 신발정리를 정말 좋아했다.

그것이 지나쳐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모조리 꺼내놓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흠뻑이기만 하던 엄마는 동생을 말리기 시작했다. 욕박지르기도 했고 어르기도 했지만 동생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동생은 집이 떠나가라 울면서 신발을 끌어안았던 것이다. 이제 엄마는 슬픈 눈을 하고 동생이 신발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고 나왔을 때까지 동생은 신발정리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보고 있었다. 교회목사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나는 포켓몬스터가 그려진 운동화를 만지작거리는 동생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엄마도 좀 들어가 있지. 나는 현관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엄마가 안쓰럽게 여겨졌다.

목사님이 현관 앞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았다. 사람이 들어와도 아랑곳없이 동생은 신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엄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동생의 머리 위로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무어라고 기도를 올렸다. 나는 방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 병을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것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거실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보며 실소를 머금었다.

목사님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지은이가 어서 쾌유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올렸다. 이어서 교인들은 높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지은이를 의식했음인지 목소리는 크고 웅장했다. 나는 문제집을 덮어버렸다. 지금 동생은 어떤 기분일까. 주위에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동생은 구두 한짝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리저리 돌아보고 있었다.

나는 현관 불을 켰다. 동생이 한쪽 구석에서 구두를 찾아냈다. 아빠 구두였다.

나는 동생의 반짝거리는, 그러나 조금 풀어진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지은아, 너를 위해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잖나, 그만 신발을 내려놓으렴. 동생은 계속 아빠의 구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임 현 아 (상명고 3학년)

수상자

장원



상명고 3학년
임 현 아

차상



인화여고 3학년
이 경 민

차하



부영여고 3학년
김 성 은

차하



진명여고 2학년
김 하 니

심사평

대부분 다짐형 결말
진솔한 생각 표현이 바람직

제41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수필부문 본선 심사대상으로 넘어온 작품들은 모두 80여편 가량이었다.

심사대상이 된 작품들은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고르고 무난한 편이었던 반면, 특별히 눈에 띄는 작품은 많지 않았다. ‘신발’이라는 소재에 지나치게 얽매어서 ‘신발’이라는 대상이 불려일으키는 일반적인 연상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가운데 특히 ‘신발’이라는 대상을 통해 엄마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심사위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글들은 교훈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글들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체험을 살린 글들이었지만, 이러한 글들 역시 ‘앞으로~해야겠다’는 식의 다짐형 어투로 글을 끝맺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학생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대상에 대한 현상적인 사고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지당한 말씀’을 답습하는 도덕적이고 계몽적인 사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씁쓸했다.

학생들의 글에서 자주 발견되는 ‘~해야 한다’, ‘~해야겠다’는 식의 어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도덕적 틀에 맞춰 인위하게 글을 쓰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위한 글들이 읽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사를 거쳐 당선권에 올라온 작품들은 미진한대로나마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는 작품들이다.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의욕과 역량이 더 넓고 깊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박혜경 (문학평론가)
이상영 (본교 법학과 교수, 본사 주간)
이종대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나만의 유리구두

차상

영원히 깨지지 않을 마법
또다른 세계로 나를 이끌어 줘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꼬까신 하나….’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이 동요들을 내 또래뿐 아니라 어른들의 어린시절에도, 그리고 지금의 꼬마들에게도 친숙한 노래들이다. 뽀뽀대는 요란한 반주와 함께 시작되는 여자아이의 간드러지는 목소리. 그 노래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문득, 어렸을적 나에게 찾아왔던 한 ‘유리구두’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 동요에 나오는 ‘새신’과 ‘꼬까신’ 그리고 ‘비단구두’로 기억되는 그 구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짝거리는 하얀색 에나멜가족에, 앞부리에는 두겹으로 된 납작한 보석 다섯 개가 즐지어 박혀있는 구두. 엄마가 그냥 예뻐서 신으라고 사다준 것인지, 아니면 그 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구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다.

한창 동화를 즐겨 읽던 당시의 나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리구두가 나오는 부분은 아직 어린 나에겐 호기심 그 자체였다. 유리구두는 정말 유리로 만들어졌을까? 신으면 발이 다 비칠텐데 아빠는 무뎌서 신으면 안되겠다 등등 그런 생각들. 그 하찮아 보이는 문제들 하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 그것들에 대한 답이 정말로 중요했었다. ‘유리구두’는 그렇게 내가 ‘동경’이란 것을 해본 첫 물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검은리본이 달린 하얀색 에나멜 구두는 나에게 있어 단 하나인 ‘나만의 유리구두’였다. 그걸 신으면 동요처럼 머리가 하늘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처럼 나를 뽀뽀 날아다니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구두를 나는 우중충한 신발장에 넣는 것이 싫었다. 유별났던 나 때문에 그 구두가 항상 놓여져 있던 자리는 언니와 내가 쓰는 방에있던 내 보물상자. 그 안에는 빨기에서 뽑은 장난감 악세사리들과 가짜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색색들이 빛을 내는 머리끈과 큐빅이 박혀있는 머리핀 몇 가지였다. 구석엔 내가 아끼던 바비인형의 옷가지들도 그리고 그 정중앙에 나의 ‘유리구두’가 놓여있었다. 행여 삼처가 날까 미미라처럼 운동 휴지로 휘감아 놓은 바로 그 구두가.

나는 그 ‘유리구두’를 사자마자 신지 않았다. 보자마자 뽀뽀 집어다 신주단지 마냥 모셔 놓았고, 어쩌다 신을때면 그건 흙으로 덮힌 땅위가 아니라 매끈매끈한 마룻바닥에서였다. 그리고 뭐가 그리 무서웠는지 신었다가 얼마 안있어 도로 벗어 고이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마치 꼬까신을 벗어놓고 나간 아가미냥 나는 안절부절 못했었다. 누군가가 그 구두를 한번 보려고 하면 나의 온갖 앙갚음과 심술을 견뎌내야만 했다. 물론 그 대부분이 중간에 손을 놓아버리곤 했지만 가끔가다 장난기 많은 오빠나 아저씨들이 오면 나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이 ‘구두사수작전’에 들어갔다. 지금도 나는 내 물건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편이다. 하지만 그때의 그 구두만한 물건도 없는것 같다. 누군가가 보면 꺼져버릴것만 같은 그래서 꼭꼭 숨겨두고 나만보고 싶었던 그 구두. 나만의 아름다운 ‘유리구두’는 어느 특별한 날 아주 특별한 그날에 내발에 신기위해 신데렐라를 무도회장으로 안내하듯 나를 유치원 졸업식장으로 데려갔었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신데렐라가 되었다. ‘초등학교’이란 왕관이 내머리위에 씌어진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또 사랑하였던 나만의 ‘유리구두’는 나를 정말로 신데렐라로 만들어주었다. 다만, 한가지 진짜 신데렐라와 다른 것은 이 마법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다.

지금의 나는 고등학교, 그것도 3학년이라는 나이에 위버렸다. 그런 나에게 번쩍 거리는 에나멜 구두는 이제 필요가 없어져버렸다. 나에게 스니커즈도 있고, 하얀색 운동화도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신게 될 하이힐도 있다. 어느새 커버린 발에 맞는 에나멜구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또다른 세계로 이끌어주고 나를 좀더 성숙하게 해주는 ‘투명유리구두’는 이미 내 발에 신겨져 있다. 이제는 정말 어디로든 떠날 일만 남았다. 그 긴 여정에 이 ‘유리구두’가 다시 한번 나만의 ‘유리구두’가 되어 절대 깨지지 않을 마법으로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시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본, 그 수많은 에나멜 구두 속에서 자신만의 ‘유리구두’를 찾아낼 사람은 또 누구일까. 오늘도 여전히 내리고 있는 내 발걸음 속에, 내 유리구두 속에, 나는 매일 마법에 빠질 것이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경 민 (인화여고 3학년)

소나기

한총련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나는 이렇게 본다



△잘했다. 전쟁 일으키려 하는데 정부는 무일하고 있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했으면... 난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한총련. 공부나 하라고 권하고 싶다.
 △명분 있다. 다만 참가한 학생들은 결국 명예를 안게될 가능성이 높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도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순 없다.
 △남의 군대가 내 나라에서 전쟁 연습하는데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 잘 했다 한총련!
 △미친짓이다. 한미 우호관계에도 좋지 않다.
 △용감하지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준비성 없고 무모한 행동이었다.
 △아무리 미국이 싫다고 해도 불법적 행동은 용납이 안된다.
 △일부 강경파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부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이라 확대시키면 안될 것이다.
 △언론에서 너무 부풀린 것 같다.
 △언론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부대에 들어가진 말아야 했다.
 △평화적 시위를 지향해야 했다.
 △언론이 한총련을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너무 성급했다.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했을 듯..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게 별로 없을 것 같다.
 △군대나 갔다오고나서 그런 행동해라.
 △잡혀들어가 사람들 변호사비 내가 조금 보탬어요~!
 △한총련이 앞장서서 미국놈들 몰아내자!
 △한총련, 대학생활 대표해서 잘~했습니다.
 △미국사람들, 우리 지켜주겠다고 애쓰는데 뭐하는 짓입니까?
 △민족 동국, 민족 사랑, 민족 대학교, 민족 한총련!
 △자주민주 통일로 가자!
 △조국외의 신새벽을 열어간다. 통일선봉대!
 △한나라당에게 트집만 잡힌 꼴 아니냐. 조금만 참지 그랬나.
 △마치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태극기는 왜 들고 갔나.

사법개혁과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에 등장한 대법관인선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대법관인선에 대한 대법원의 구태의연한 자세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함으로써 흐름을 자초했고, 뒤늦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렵사리 문제를 봉합했다.
 사법과정까지 갈 뻔했던 이번 사태로 진일보한 것은 사법부 뒤의 헌법재판관에 여성과 소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법조인이 지명됐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나오게 된 것이다.

스스로 터뜨린 사법개혁 목소리

이번 사법부파문은 대법원의 발빠른 행보로 구성원간의 갈등이 봉합되었으나, 이런 해결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이번 사태는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법부내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갈등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수의 국민은 사법부가 과연 국민 권리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 대법관인선문



논단
 김 상겸
 법학과 교수

‘법 가르치기’부터 제대로

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사법부 구성원의 민주적 선출이나 여성대법관의 임명 등으로 실현될 문제는 아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여 합리적 분쟁해결을 통한 사회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법률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않은 법률가양성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법개혁에는

법률가양성을 위한 법학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학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나, 법학교육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못한 법률가의 양성은 법학이라는 학문과 법조라는 실무를 유리시킴으로써 법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법조실무에 생명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현행 제도의 모순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

으며, 사법시험을 과거제도화 하여 대학교육을 과행으로 돌아가고 있다.

학문과 법조실무의 ‘일체화’를

물론 법학교육은 단순히 사법시험을 위한 준비 과정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률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 자격을 위한 법학교육은 필수적이다.
 법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자가 법률가가 된다는 것은 의학교육을 받은 자가 의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나 법학교육연한의 조정문제는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법학교육과 연계된 법률가 양성제도가 출발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다수 대학들은 이미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다. 사법개혁도 시대정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가 진실로 소수와 약자의 편에 서서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지는 이미 선진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실무가 연계된 법조일원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참사람 봉사 수기 - ‘나눔’의 삶을 배우고...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오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에 다니고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다. 어렵게 들어온 대학인만큼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봉사'였다. 늦각이 대학생이 되어 봉사한다는 것은 나에게 벅찬 설레임을 갖게 했다.
 한사랑 마을에 가게 되었다. 그곳엔 활동이 많이 불편한 아이들 있었다. 처음엔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과연 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선영이라는 예쁜 아가씨가 나의 짝이 되었다. 나이는 14살이지만 7살 정도로 보이는, 몸은 많이 불편하지만 맑고 환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다. 초보였지만 나는 너무나 서툴러 찢찢매고 비지땀을 흘렸다. 그런데도 선영이는 나를 이해해주며 많이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웃어주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평소에 자기비하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선영이는 혼자서 거동할 수조차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다른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다. 평소의 온갖 불만을 다 안고 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나는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온 것이지만, 육신의 도움과 영혼의 도움을 나눈 것이었다. 오히려 그 아기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것이다. 몇 시간의 짧은 만남이지만 선영이의 해맑은 미소와 행복의 표정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훌륭한 오리엔테이션 덕분에 어떤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KSDN 녹색시민연대 등 지구를 위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시민단체의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니, 너무나 훌륭한 의식을 갖고 돈과는 무관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강좌 포스터를 들고 다니며 동사무소와 지하철에 부착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까지도 걸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아팠다. 그 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니 놀라울만큼 존경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어두운 쪽으로만 비춰졌던 이 사회가 이번 봉사를 통해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조금은 밝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껴졌다. 봉사는 '배움'이 아니라 '나눔'인 것을 알게 되었다.
 조병희(아간강좌 경영2)

졸업, 또 다른 여정의 시작

2003년 졸업. 먼저 이번엔 졸업한 학우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길고 힘든 여정을 무사히 마쳤노라고, 그리고 사회에 당당히 도전하는 첫발을 내딛게 될 거라고.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무작정 축하만 할 수는 없는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졸업만 하면 그러저럭 앞날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된 지 오래다. 현재 졸업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취업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수년간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다보니 그 영향은 졸

업을 앞둔 고학년뿐만 아니라 이제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지라도 누구나 졸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캠퍼스에 남겨두고 간다. 아마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있다. 하지만 소위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학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졸업이란 단어는 끝, 그리고 시작이라는 두 단어를 함축하고 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소극적인 자에게는 약간의 긴장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자신있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에게는 흥미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현실시점에서 졸업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일. 바로 이 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야만 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김현수(토목환경3)

독자서평 - 아버지, 당신은 나의 산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보여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많은 고민을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 당신은 산입니다'에는 두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 8.15 해방부터, 80년대 민주화운동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위해 삶을 바쳐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안락만을 위한 삶이 아닌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더불어 산다는 것.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소박한 일이다. 내 인생의 좌표를 오직 '나'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에 두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닐까 한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누구의 삶이 치열하지 않겠느냐는 일신의 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나의 삶을 일치시키려 험난한 길도 마다 않고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할나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와 역사와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보스러울지 몰라도 그 어떤 삶보다 아름다운 삶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온 삶의 방향을 일치시키며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서술된 책의 마지막 부분은 더불어 사는 삶의 구체적 나침반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대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다.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류연숙(아간강좌 영문4)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탁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THE KHAN CARTOON WORLD
 멋진 마술을 보여주시...
 학생, 직원, 교수
 자랑스러운 동국 100주년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통계학과 '김은선' 은선언니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회학과 진아 형 졸업 축하합니다.
 △구호야, 서울 입성 축하해
 △북한학과 김원~! 복학 축하하네.
 △오승열, 최운형 200일 축하합니다.
 △졸업한 산공과 친구들 축하해 -KKH
 △진숙언니~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좋은 선생님이 되세요. 한번에 꼭! -후배영
 △용~! 복학 축하해,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고.
 △세무회계 99 심해선양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성호형! 생일 축하해요. -DKTG
 △태현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영일
 △원재형, 달마형 생일 축하해요. -영수·공희
 △실화야, 생일 축하해! -찬성
 △희운! 생일 축하해! -Janice
 △은주, 진숙 졸업 축하한다. -신임
 △난만 고양이 유나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신방과 02 김혜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숙이가
 △김우준님 졸업축하합니다.
 △'96 소형이 형 졸업 축하합니다.
 △AD RUSH 미(미)사랑 입상 축하!
 △8월 31일, 지현이와 재신의 100일을 축하합니다~☆
 △보람아! 남자친구 생일 축하해!!
 △파소, 후진 폭염에서 살아 돌아온 거 축하한다.
 △인희야! 두번째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축하해!
 열심히 합니다
 △2학기에도 경영학과 야구 소모임 로드러너스... 우승을 향해서 화이팅! -우감독
 △목표를 이루어서 기분 좋게 만나자!
 -CPA 최창규
 △염정원 ~ 2학기때는 공부해라 -PYO
 △국어교육과 식구들 2학기 열심히 살자구요. 우린 국교과파입니다. -실
 △16기 통선대 더 열심히 삽시다! -이량
 △SSD 앞으로도 연습 열심히! 정기공연 화이팅!

△사회과학부 학부생 여러분 2학기 열심히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국교 4학년들, 기나긴 방학 보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국문과 조교님, 사무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다리에도 등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구요. △지주학원 통선대 수고하셨습니다. -실
 △불패야총 정석, 주희, 혜정, 영일 16기 통선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삽시다.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개강이다. 생물학과 금강초롱회, 화이팅!
 △개강하면 술잔들 하자고!
 △동아리, 신문사 농활대 개강하면 한번 만나자요!
 △만해광장 농구대 좀 지켜주세요~
 △추석이 기다려지네요..~

	월(8/25)	화(8/26)	수(8/27)	목(8/28)	금(8/29)
동국관	소고기해장국 (1500) 두부김치 (1500) 네티아니구이 (1500)	소고기국밥 (1500) 떡볶고기 (1800) 피자돈가스 (1500)	부대찌개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얼무비빔밥 (1500)	설렁탕 (1500) 닭조림 (1800) 간풍육 (1500)	돈육볶고추찌개 (1300) 소고기케라리스 (1500) 오징어덮밥 (1500)
상록원	정어국밥 (1500) 미트볼덮밥 (1500) 골뱅이소면무침 (1500)	소고기이채덮밥 (1500) 오징어가스 (1500) 김자탕 (1500)	떡만두국 (1500) 해물덮밥 (1500) 김치볶음밥 (1500)	닭곰탕 (1500) 카레볶음밥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소고기무국 (1500) 돈장조림 (1800) 생이채비빔밥 (1500)
교직원	해물된장찌개 (3000) 제육볶음 (3200)	육개장 (3200) 카레라이스 (3000)	튀김우동 (3200) 더덕구이 (3500)	떡배기볶고기 (3500) 이면수구이 (3200)	돈가스 (3200) 닭모듬꼬치 (3200)

■금주의 추천메뉴 ■
 열무비빔밥(동국관 수요일 석식)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풋풋한 향이 일품인 제철 열무를 이용한 음식. 돼지고기를 넣고 잘 볶아낸 고추장과 살짝 익힌 김가루와 삶은 계란이 비벼진 그 맛은 더위로 인해 저하된 식욕을 한층 높이는데 더없이 좋은 음식이다.
 열무는 잎이 연하고 맛있어서 뿌리인 무보다 잎을 이용하는 채소로 열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다.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은 식품이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열무에 곁들여지는 매운 고추장만큼 살균력이 뛰어나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다. 유진영(동국관 식당 영양사)

문화일기
내 생애 최고의 ○○

도서 - 멀게만 느껴졌던
법과 친구되기



강 선 하
사과대 1

법조계에 관련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일면 남의 일처럼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늘어나면서 법은 더 이상 '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동안 법률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던 나에게 이 책은 법이란 결코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역사상으로 유명했던 재판의 법정에 내가 마치 서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기도 했다.

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빠져들수록 내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기도 했다.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법 관련 내용들을 필자가 만들어낸 소설과 실제 판례에 묘사시키고, 해당 문제에 대한 과학적 비판을 교차시킨 점에서 충분히 이 책은 나의 이목을 끌었다. 딱딱한 판례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재창조한 저자의 재치와 필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저자는 다양한 실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변호사 윤리'와 '돈과 관련된 법의 현실'이라는 두개의 화두를 던진다. '뉴시칼과 사시미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병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이, 가장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도 통용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다. 동시에 '의정부-부조비리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법조현실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법은 나와는 먼 이야기로만 느꼈던 것이 이 책을 읽는 후에는 한층 가깝게 여겨지는 것 같아 유익한 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겼다.

'변호사 이야기'는 나처럼 법을 알고 싶지만 뼈속까지 한자 때문에 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법과 친해질 수 있게 돕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박스뮤직을 벌레 죽이듯 죽이려고?



'저작권 인접권'으로 새 국면 맞은 박스뮤직 논쟁 문화 유통 변화 고려한 해결책 찾아야

경우가 많다. 때문에 P2P 서비스와 관련한 소리바다 문제에 이어 박스뮤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논쟁은 지난해 7월 5개 음반사가 박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박스뮤직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요즘 들어 복제권인 '저작인접권'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음반계를 제외한 문화계가 위에서 언급한 가수들의 기자회견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저작권접권은 창작자 혹은 실연자 입장인 가수들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다. 그런데 가수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업적 측면과 관계된 저작권접권이 창작물에 관한 권리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왜곡된 우리나라 음반시장 구조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한편, 박스뮤직은 저작권접권에 관한 청구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못 낼거면 유료화하라"고 외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청구한 금액은 1년 수익액의 8.4배다.

그렇다고 청구 금액 마련을 위해 이용자에게 매월 3천원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뒤편은 온라인 음악시장을 오프라인 음반계가 그냥

빼앗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박스뮤직 한 관계자의 말은 이 논쟁의 키워드가 저작권이 아닌 음반산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침체는 분명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로 인해 형성된 문화 향유방식의 변화는 고려치 않은 채 불황의 원인을 온라인으로만 돌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법적 대응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입장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은(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간사) 씨는 "당사자들간의 협상태이블을 마련해 기존 유통 구조에서 벗어난 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스뮤직도 감정적 호소가 아닌 대중 음악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방안 제시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업적 음악 DB 구축, 오프라인 음반 시장과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장기전이 계속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온라인 문화유통의 주체인 이용자들이다. 때문에 적정 사용료 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도 제작자와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더불어 해결책 역시 '밤그릇 싸움'보다는 이미 형성돼 있는 문화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는가 하는 논의에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온라인 불법서비스로 인해 한국음반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80여명의 가수들이 '디지털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라인 음악제공 서비스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한 이 기자회견의 진짜 과녁은 사실상, 아직 무료서비스를 고수하고 있는 '박스뮤직'이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달할 수록 저작권에 대한 논란의 열기는 뜨거워지는 추세다. 특히 영상에 비해 공유가 쉬운 음악이 '비련의 주인'이 되는



종이로 만든 세상으로의 초대

'2003 종이 충격전' 오는 31일까지 열려 ... 수준 높은 종이접기 작품 볼만해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 '수립과 동양의 용'.

학, 거북이, 장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누구나 한번쯤 종이를 이용해 접어본 경험

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용, 전투 비행기 등 우리가 상상하거나 본 많은 것들은 어떨까.

한국종이접기협회(회장=노정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동대입구역 앞 종이나라 빌딩에서 '2003 종이충격전'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행사를 주관하는 토마토판넬의 김형만 마케팅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종이로 표현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는 종이로 만든 세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투 비행대'와 '공룡 마을', '캐릭터 마을'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큰 테마로 구성했다. 특히 동·서양의 용을 재현한

작품의 경우 높이 1m 50cm, 길이 2m의 큰 규모를 자랑하며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곤충 마을의 경우 실제곤충의 표본을 함께 전시해 자연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접 종이 공예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공예 재료 판매 백화점과 체험 공작실이 마련돼 있으며 종이 박물관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시회를 관람한 권영희 씨는 "전시된 작품들이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행사 이름대로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위한 '10만'의 사랑을 담아... 코너는 전시장 관람객의 수가 적어 10만 명의 참가가 불가능해 지자 후원 기업들이 등을 돌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단신

U-대회 문화행사

지구촌 대학생들의 행사 2003 대구국제유니버시아드가 오는 31일까지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대에서 펼쳐진다.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운동경기를 겨루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한 축제의 장으로 발을 넓혔다.

또한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의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경축문화행사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깃발축제'는 고유의 전통깃발, 창작깃발 등을 전시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운동경기와 함께 준비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행사를 즐기는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3'이 오는 7일까지 흥대 인근 20여개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일본, 태국, 중국 등 아시아 10여 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각국 문화 교류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부문은 음악, 미술품 전시, 독립영화, 무대예술, 거리예술 총 5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흥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젊은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아트 상품을 전시, 판매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이와 관련해 행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아시아의 차세대 문화예술인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 325-8150

하지만 토마토판넬씨는 남은 행사 기간 중 관람객이 급증할 경우 한국종이접기협회 등에 후원요청을 통해 행사 분래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종이를 통해 보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인기 캐릭터와 비행기 모형들.

높은 습도로 짜증나는 여름, 전에 볼 수 없던 '충격'으로 더위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행사장 옆에 위치한 본교의 학생들이라면 말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500원 할인쿠폰

2003 종이충격전

서울시 중구 동대입구역 1~4층 2003년 7월 25일~8월 31일

2003 한가위 한마당

한가위 한마당 - 9월 8일 불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 상설 놀이 한마당

불상 주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판과 경연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민속놀이판 - 널뛰기와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놀이
- 제기차기 대회 - 남녀 각각 1등 문화상품권 2만원권 / 2등 1만원권
- 널뛰기 대회 - 2인 1개조(남녀부없음) / 1등 문화상품권 4만원권, 2등 2만원권

▶ 팔 세울 대회 / 씨름 대회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과 팔씨름을 통해 동국 최고의 힘!!을 찾아보자.

- 1등 - 문화상품권(50,000원상당) 남, 여
- 2등 - 문화상품권(30,000원상당) 남, 여

▶ 줄다리기 대회 / 단체 줄넘기 대회

- 줄다리기 - 경기시간/장소 : 늦은 1시, 불상앞
- 경기방법 : 남녀 10명, 여자 10명이 한팀이 되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
- 상품은 1등-식권 100장! (2등-50장, 3등-30장)
- 단체줄넘기 - 경기시간/장소 : 늦은 3시, 불상앞
- 경기방법 : 남자 5명, 여자 5명(변동가능) 줄넘기는 사람 2명이 한팀이 되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
- 상품은 1등-식권 60장! (2등-36장, 3등-12장)

▶ 황금장을 울려라

푸짐한 상품과 함께 생협에 관한 문제를 학우들과 함께 풀어본다.

- 황금장을 울리는 모든 분께 - 겨울학기특강(문전면허) 무료 수강권
- 이차상 - 겨울학기특강(영어강좌) 무료 수강권

▶ 우리웃고 슬픈애

대동제와 더불어 명절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님께 또는 친지께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 판매 물품 : 우리 옷 (돌살나이) / 북한 술

▶ 우리 떡, 음료 나누어 주기

우리의 막거리인 떡(송편, 절편, 백설기)과 우리 음료(식혜와 매실차)를 중앙도서관 앞에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시간 - 늦은 2시 중앙도서관 앞
- 늦은 5시 30분 동국관 앞 (야간강좌 학우들을 위하여)

* 모든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8일 오전 10시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접수 받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학생 복지위원회

2003 한가위 고향가는 길

- 9월 9일 오전 10시 대운동장에서 출발

◆ 노선은요?

- * 직통 노선
- 부산 / 마산 / 대구 / 울산 / 광주 / 진주 / 포항 / 전주 / 강릉

* 경유 노선

청주-대전-논산 / 당진-서산-예산-홍성-보령-서천 / 익산-군산 / 전주-정읍-고창 / 전주-임실-남원 / 나주-무안-목포 / 순천-여수 / 순천-별교-고흥 / 원주-강릉-동해-삼척 / 제천-영주-안동 / 영동-김천-구미 / 충주-문경-상주 / 경주-포항 / 마산-창원-진해 / 창원-밀양-김해 / 거창-진주-통영

◆ 제주도는 어떻게 하나요?

- 접수 및 환불 - 귀향 버스와 동일 (5일 이후 환불시 30% 공제 후 환불)
- 고향 앞으로 - 9월 8일 15시 55분 김포공항 국내선 2층 종로터미널 앞
- 다시 학교로 - 9월 15일 14시 15분
- 금액 - 왕복 116,000 (공통 이용료 포함 / 편도 절대 불가)

◆ 접수하시려면

- 기간 - 8월 27일 ~ 9월 3일
- 시간 -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중앙도서관 앞
-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 동국관 앞 (27, 28, 29일 3일간만 진행)
- 환불 및 교환 - 9월 4일, 5일(이후에는 절대 불가) - 학생복지위원회(다량관 3층)

◆ 가격

고속버스 운임료의 40% (도시락, 기념품 제공 / 여행자보험 가입)

◆ 귀향버스 대장을 모집합니다.

- 차비는 무료!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고생하셨다고 문화상품권도 드립니다.
- 해야 할 일은 차량 인원 점검, 기념품·도시락 배분 등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

하나. 귀향버스 사업은 생협의 이익금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환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둘. 접수시 학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셋. 접수 기간에는 일일 차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 복지위원회

2003학년도 2학기 특별시험 안내

1. 시험과목 및 시험일시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 험 일 시
RG0011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2	1	2003. 8. 30(토) 09:00 ~ 09:50
RG0010	교필	실용영어2	1	10:00 ~ 10:50
RG0008	교필	영어회화2	1	11:00 ~

2. 응시자격 : 2003학년도 2학기 1학년 재학생

3. 전 형 료 : 과목당 50,000원

4. 최대 신청학점 : 3과목(3학점) 까지

5. 원서 접수기간 : 2003. 8. 25(월) ~ 8. 27(수)

6. 원서 접수처 :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 (본관 2층, ☎ 2260-3886)

7. 전형방법

- 가. 컴퓨터활용과 실습 2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 평가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등의 실습테스트)
- 나. 실용영어 2 : TOEIC 형태의 시험 실시 후 평가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 다. 영어회화 2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 (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8. 합격자 발표 : 2003. 9. 5(금) 학교 홈페이지

9.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0를 부여함.

10. 유의사항

-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 신청을 불허함.
- 나. 고사일은 2003. 8. 28(목)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교 무 처

매체비평

TV 편

TV 생활법정

“법률 문제 접근방식 신선해
소재 한정문제 과제”



생활 속 사소한 분쟁을 다뤄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KBS1 'TV생활법정'.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KBS1에서 우리는 법정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 지난 해 11월 2일부터 시작하여 이달 23일로 38회를 맞고 있는 프로다. 1시간

가량의 시간에 2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말하자면 박진감 넘치는 법정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만든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고 모두 자기 마음대로 남을 컨트롤 할 수 없기에 사회에 속한 우리 주변에는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KBS 홈페이지의 이 프로 사이트 시청자 게시판에 가 보면 2천개가 넘는 게시판의 글이 올라와 있고, 이는 우리 주변에서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쟁이 발생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려 든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분쟁에 어떻게 대처할까. 법을 좀 안다는 사람에게 일단 물어 볼 테지만 쉽게 안심할 수 없다.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한다.

이러한 보통 사람들의 의문을 이 프로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매우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논쟁하며 답을 들으니,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시청자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요즘 법률관계 프로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프로의 제작자가 말하듯이 “제작진이 당사자들에게 의뢰를 직접 받고 선정된 사례의 의뢰인과 피의뢰인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실제 법정의 판사경력을 갖고 있고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황산성

변호사를 생활법정의 판관으로 세워 법적인 신뢰도가 높은 프로”다. 이러한 제작 의도는 다른 한편으로 이 프로의 한계가 될 수 있다. 프로가 성립하려면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출연해야 하는데, 참여하게 대립하는 당사자라면 쉽게 스튜디오에 나가 서로 얼굴을 맞대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점은 소재의 한정,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재의 한정을 상쇄하기 위해 프로를 만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면 어떠할까. 지금도 계속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미국에서는 퇴직법관(법관이 퇴직하여 변호사로 각광을 받는 전관예우)은 아마도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을 판관으로 하여, 분쟁 당사자를 불러 스튜디오에서 재판을 하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 생방송 프로가

있었다. 생방송은 아마도 공중파인 KBS의 상황에서는 시간관계상 불가능할 것이다.

생방송의 묘미를 덧붙이자면 판관이 굳이 전직 판사에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을 꼭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에 맞는 해결이 딱딱하고 메마른 법적인 해결보다 좋을 때가 많다. 생방송이 아니라도 결과판은 사전에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 12명에게 바로 스튜디오에서 판단을 시키는 미국식 배심기법을 가미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소재의 한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김상수
본교 법학과 교수

황학동

늦어도 북적대는 시장 입구.



추억의 뭉치가 세자매 인형.



현책방 앞에 멈춰선 할아버지.



단순하고 적나라한 이름의 치료약들.



마을 깎아 팔고 있는 상인.

도깨비 시장어

가는 빗줄기가 지나간 오후, 청계천 6가에 들어서자 비 비린내와 함께 녹슨 철근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다. 해가 나자 포장비닐을 걷어내느라 분주한 노점상 상인들이 맞은편에는 고철 덩어리가 된 고가도로가 '정지'해 있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두고 벌어졌던 뜨거운 논쟁도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발등에 불붙은' 상인들의 것만으로 압축됐다. 그래서인지 '생존권 보장'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소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인들의 천막도 노점상 속에 섞여버린 듯 보였다.

“도깨비 시장? 이리로 쪽 걸어가. 걱정 말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황학동 벼룩시장 가는 길을 물으니 한 상인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보냈다. 아마도 '언제 없어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은 모양이다.

“사람 빼고 다 팔아요”

동대문 청평화 시장부터 청계천 8가 대로와 삼익 아파트 일대까지 이어진 황학동 벼룩시장의 역사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2000여명의 상인들이 500여개의 점포에 등지를 틀고 있는 황학동 시장은 현책, 낡은 LP판부터 구두약까지 없는 게 없다. 못 쓸 물건도 이 곳에 오면 새 것이 된다하여 '도깨비시장'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두 배로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 게다가 청계천 복원사업도 걸려있고.”

중고 공구를 파는 이 씨(48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난한 서민들이다. 때문에 옷, 신발 등의 가

격이 이전된 안팎이고 말만 잘하면 가격의 절반을 푼 잘라주기도 한다.

“술 잘먹냐? 이걸 감싸고 먹으면 술이 순해져. 아픈 곳에 대면 낫지.”

또한 '만병통치' 휴지, 살아있는 지네, 동공구루부, 고량주 등 평소 보기 어려운 것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국수, 우뚝가사리떡, 우뚝 등 허기를 달래기에 충분한 천원짜리 먹거리도 풍성하다.

과연 '혐오시설' 인가

그런데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여느 주변 상가들과 마찬가지로 30년 넘도록 활기가 넘치던 이 곳 역시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 빠르면 내년, 청계천 복개 후 청계천변 도로가 놓이면 완전히 절멸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는 '혐오시설' 철거를 통해 쾌적해진 서울을 경제·관광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개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파구 장지동에 상가를 지어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상인들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특이한 모양의 조각품과 촛대 등을 리어카에 한가득 싣고 15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김 씨(72세)는 “여기가 아니면 안돼. 누구나 다 아는 이유를 왜 똑똑한 정부관리들이 모르냐는 말이지”라며 한숨을 내린다.

수 십년간 쌓아온 황학동 시장의 역사와 문화는 상인들의 생존문제 뿐 아니라 서울의 문화사에도 얽혀 있다. 7·80년대 옷가지 하나를 100원에 사입던 노동자들, 차비를 아껴 산 형광등으로 밤을 밝히던 서민

들의 생활사·문화사가 담긴 이 곳은 생동하는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황학동 시장을 '혐오시설'로 치부해버리는 현실을 안타깝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백화점에서 이런 걸 파는 게 상상이 가나. 폐업 아니면 전업이지.”

황학동에 터를 잡은 지 30년이 되어 가는 김 씨(60)는 이미 형성돼 있는 황학동 시장의 문화를 벗어나는 순간, 이 곳 물건들은 그야말로 '쓰레기'가 된 다며 쓸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사면 부끄러운 것이 되는 낡은 수저와 이불, 그리고 '빨간 비디오' 까지도 이 곳에 오면 풍경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청계천은 중요하고 근현대 민중문화는 왜 혐오스러운가.”

쭈그리고 앉아 구경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들과 오가는 이야기가 있어 하루 매상이 만원이라도 매일 나온다는 배 씨(57세). 그는 인위적으로 '보기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짜' 문화를 파괴하겠다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문화적 가치 인식해야

주말이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느끼기 위해 황학동 시장을 찾는다. 그렇듯하게 정돈된 박물관이 아닌 낡은 시장이 한 나라의 진정한 문화를 말해주는 곳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대규모 벼룩시장의 맥을 잇고 있는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내친 김에 없애기’는 쉬워도 그것

가다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던 늙은 골동품들.



저렴한 가격의 옷과 신발.



고전부터 성인용 비디오까지.

메아리

위험한 길들이기

▲“늑대가 나타났다”

매일같이 양떼를 데리고 풀밭으로 나가는 양치기 소년.

그는 심심하면 마을을 향해 “늑대가 나타났다”며 장난을 친다. 이 말을 처음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런 그의 장난을 믿었지만 소년의 장난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를 외면하고 만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솝우화 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 이야기다.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학교측은 조만간 병원개원추진본단을 발족하고 외부업체로부터 수익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중립학교관리위원회 신하에 병원공사 관련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병원개원을 위한 움직임이 학내·외적

으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임을 틀림없는 듯 하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병원개원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회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학교측은 총학생회와 ‘학내계주체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원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새총장 취임 후에도 꾸준히 “불교병원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개원을 준비할 것”이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개원이 지연된 지 약 1년이 흘렀지만 학생회는 “학교측으로부터 병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적이 없다”고 말해 학자합의안 이행여부가 문제가 지적된다.

▲양치기 소년의 계속되는 장난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의 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

매년 학교측과 학생회는 등록금 등 중요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곤 한다.

특히 불교병원 개원 여부는 학내 뜨거운 감자인 만큼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할 것임에 두말할 나위 없다.

“개원을 위해 주체들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

학교측의 이 말이 양치기 소년의 그런 한마디가 아니길 바란다.

조슬기 대학부장
chof55@dongguk.edu